

# 리아호나



# 리아호나



### 표지

앞: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그림: 아놀드 프라이버그, 기억하는 형들을 꾸짖는 *Info*의 일부; 뒤: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태모라 에이치 라티타.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라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2 회원들이 열쇠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24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섯 가지 방법 플라 제이 루이스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개인적인 계시를 받음
- 28 물문경에 대한 증거들이 쌓여가다 다니엘 시 피터슨
- 36 시리얼 그릇에서 얻은 교훈 카라 헌트
- 40 말일성도의 소리: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조그만" 방법으로 봉사함 낸시 알 르 드 시후엔테스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 멜라니 프라이스 웰만  
끝까지 충실한 가정 복음 교육 말콤 더블류 왓슨  
누가 교사인가? 아이고 도꾸자와
- 48 *리아호나* 2000년 9월호를 사용함

### 청소년란

- 8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예시카 델핀 살리나스
- 11 물문 메시지: 나를 따르라
- 22 "날 찾아와 줘서 고마워" 루스 레티머
- 26 말씀에 말씀을: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 38 부전 자전 프레이저 오우머우가 로리 리브시에게 한 이야기
- 46 다섯 바퀴 피터 아롱과

### 친구들(별책 부록)

- 2 함께 나누는 시간: 금식과 기도 앤 재미슨
- 4 뉴스 속의 친구들
- 6 책 삼촌의 가장 중요한 장비 레이첼 페이스 케스터
- 8 포스터: "오늘 네 집 떠나 올 때 ..."
- 10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신시아 에스 코크리얼
- 13 신약 성서 이야기: 동방 박사; 사악한 왕 헤롯
- 16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정확히 제 시간에 에딜리스 호르헤나 시프리에니 아우리



38쪽 참조



40쪽 참조



2쪽 참조



12쪽 참조



28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월회:** 보이드 케이 퍼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 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킳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켈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일렉산더 비 모리슨

**교과 파정부 편집자:**

관리 책임자 : 로날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 리처드 엠 쉰니

그래픽 책임자 :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 알 발 존슨

부편집인 :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 코니 셰익스피어

편집 보조 : 레너 케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 스킳트 벤 캄펜

선임 디자이너 : 새리 쿡

디자이너 :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 제인 앤 피터스

생산 :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테니스 커비, 제이슨 엘 엠

포드, 디나 엘 쇼렌슨

디자인 보조 : 제프 미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우 부장 :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 조이스 헨슨

통 권 : 제 414호, 제 37권, 제 9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2000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최윤환

편집인 : 장동진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의 변경된 주소를 배부파(☎ 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투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타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카리비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September 2000 No.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 자원**

저는 리아호나(포르투갈어판)에 대하여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는 여섯 살 난 제 딸아이와 함께 가정의 밤을 합니다.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물문경의 성구를 공부하고 친구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제가 이야기 읽기를 마치면 제 딸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저는 딸아이의 이해력이 놀랍습니다. 저는 리아호나가 그 아이의 영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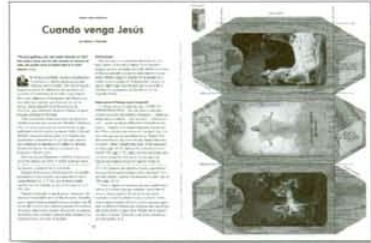
에리카 마리아 실바 모레이라  
브라질 포르탈레자 사우스 스테이크

조세 왈터 제 2와드

**상호부조회 자원**

저는 리아호나(영어판)를 매달 첫번째 일요일에 상호부조회 공과를 가르칠 때 참고 서적으로 사용합니다. 리아호나는 제가 공과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리아호나가 가장 좋은 공과 보조 교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틴 오들리오-보르날라  
필리핀 파사이 스테이크  
마닐라 제 1와드



**초등회를 위한 자원**

리아호나(스페인어판)의 기사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잘 알게 해주고 복음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리아호나는 제가 초등회 반을 가르칠 때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 기사와 그 밖의 기사들은 어린이 활동을 이끄는 방법을 알려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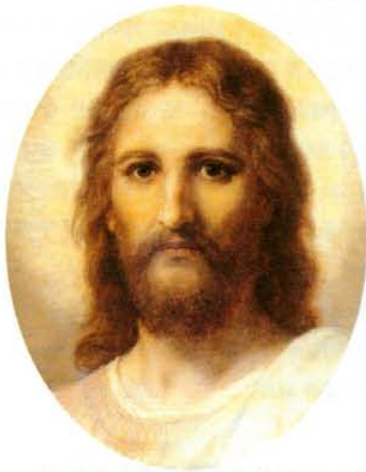
윈스톤 라파엘 구에바라 구티에레즈  
니카라과아 마나구아 스테이크  
바타홀라 와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강화시킴**

저는 몇 년 동안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구독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홀로 있을 때도 함께 하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리아호나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회원들과 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사 소통 수단입니다. 그들의 간증을 읽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간증도 강화됩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권고 또한 저를 강화시켜 주며 제게 신앙과 소망을 갖게 해 줍니다.

라모나 트레비조  
뉴멕시코 알버케르크 사우스 스테이크  
리오 그란데 와드 (스페인어 사용)

# 라벨



성전의 선생들은 그 소년의  
외적인 라벨에서 총명한  
소년의 모습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미래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주”로서의 모습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자리한 국립 미술관은 세계적인 미술관입니다. 이 국립 미술관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렘브란트 실과 컨스터블관을 소개하며, 모든 방문객들에게 터너의 걸작들을 관람하도록 권합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고양되고 영감을 받아 이곳을 나섭니다.

이 국립 미술관을 방문하는 동안, 저는 이 유명한 장소에 전시된 훌륭한 초상화와 풍경화들에 화가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의 커다란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한때 전시되었지만 아래층에 걸려 있어서 관객들의 주의를 별로 끌지 못했던 작품들 가운데 선별한 것들입니다. 이 전시회는 방문객들이 작품을 그린 화가에 관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그림들을 감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작품들에 대해서 미술관측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품의 라벨에 쓰여진 정보는 반 무의식적으로 작품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이 그림을 감상하고 각 작품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를 내린 후에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읽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라벨을 그림의 하단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림의 라벨과 마찬가지로 종종 사람들의 외모가 그릇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sup>1</sup>

겉으로 보기에 가난하고, 재능이 없고 또 평범한 생을 살도록 운명지어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태어난 보잘 것 없는 작은 통나무 오두막집 앞에 서있는 모습을 그린 소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그림 아래에 기억해 들만한 라벨이 보였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에서 살았으며, 보잘것없는 옷을 입었으며, 보잘것 없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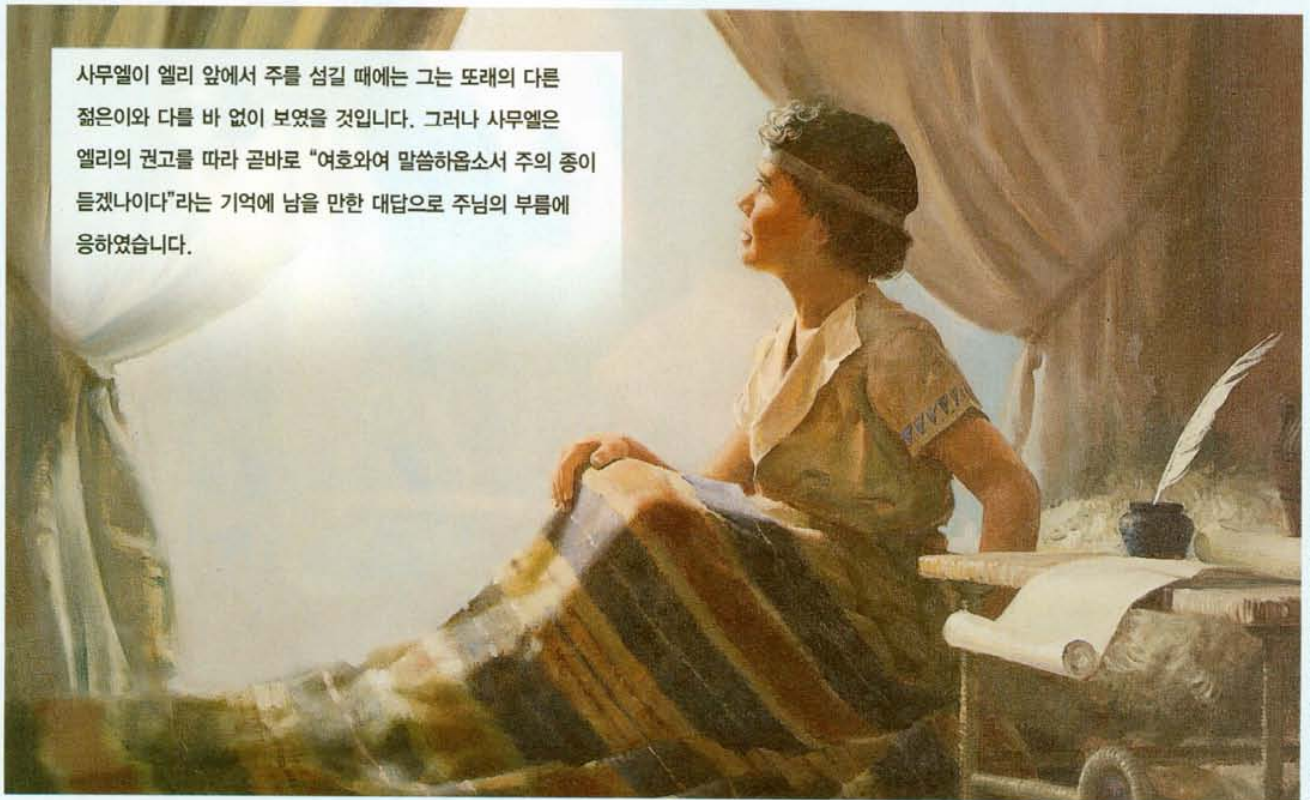
을 먹었음”. 그 소년의 진정한 라벨인 “불멸의 영광을 위한 운명을 지님”이라는 라벨은 예기되지도, 언급되지도, 적혀있지도 않았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소년의 가치를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기다려 바라보아야만 하리  
하지만 고귀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난 날 한때는 소년이었으리.

또 다른 시대에 먼 장소에서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길 때에는 그는 또래의 다른 젊은이와 다를 바 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그를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연로한 엘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sup>2</sup> 그러나 엘리가 그 소년의 말을 듣고서 그것이 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길 때에는 그는 또래의 다른 젊은이와 다를 바 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의 권고를 따라 곧바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라는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답으로 주님의 부르름에 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의 시편을 통해 소년 예언자 사무엘에게 나타내신, 해리 엔더슨 그림

님의 음성이었다고 그에게 말해주자, 사무엘은 엘리의 권고를 따라 곧바로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라는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답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하였습니다.<sup>3</sup> 그리고 기록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sup>4</sup>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초라한 말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가 누웠을 때 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떠한 라벨로도 이 사건을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이 아기가 탄생함에 따라 위대한 은사, 즉 무기 보다 더 강한 힘, 로마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보다 더 오래 지속될 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보잘 것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sup>5</sup>, 약속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아기였습니다.

예수가 소년이었을 때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시고 그 선생들이 예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겼습니다. 요셉과 그의 어머니가 그를 보았을 때, “그 부모가 보고 놀랐습니다.”<sup>6</sup> 성전의 선생들은 그 소년의 외적인 라벨에서 총명한 소년의 모습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미래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주”로서의 모습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 곧 “그는 ...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는 예언은 특별한 의미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sup>7</sup>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모습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는 기록에서, 배반자 유다와 음모를 꾸미, 주님의 생명을 노리는 사악한 죄인 무리들이 명백히 필요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에게 여러 사도들 중에서 누가 그들이 찾던 예수인가를 지적해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섬뜩한 구절이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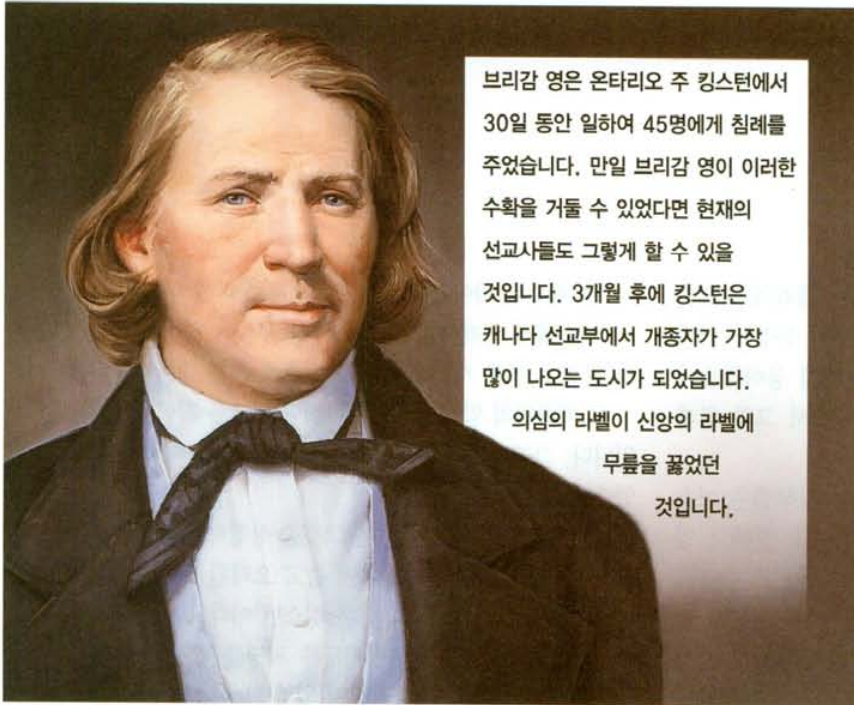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sup>8</sup>

이 배반자의 입맞춤이라는 라벨이 주님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수치와 혐오의 라벨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도시들과 나라들은 그것을 상징하는 특별한 라벨을 지니고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에 춥고 오래된 도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곳을 “돌과 같은 킹스톤”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교사들이 계속 그곳에서 봉사하도록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단 1명의 개종자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킹스톤에서는 침례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한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킹스톤에서의 시간은 마치 감옥에서 보내는 날들처럼 달력에 표시되었습니다. 킹스톤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지역으로라도 이동을 가고 싶었고, 심지어는 꿈에서 그것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선교부장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슬픈 상황에 대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할 때 저의 아내가 *예언자 브리감 영의 어린이 이야기*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에 저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내는 브리감 영(1801~1877)이 춥고 눈이 펄펄 내리는 날에 온타리오주 킹스톤에 들어갔었다고 소리를 내어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30일 동안 45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sup>9</sup> 여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만일 선교사 브리감 영이 이러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면 현재의 선교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저는 패배의 악순환을 끊어 버리기 위해서 킹스톤에서 선교사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말을 유포시켰습니다. “곧 새 도시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도시는 브리감 영이 30일 동안에 전도하여 45명에게 침례를 준 곳이다.” 선교사들은 그 도시가 어떨까 하고 추측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주례 보고서를 통해 그 지상의 낙원에 배치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얼마간의 시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4명의 선교사들—두 명의 초임 선교사와 두 명의 경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벽찬 모험을 위해 신중히 선정되었습니다. 작은 지부의 회원들은 그 선교사들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선



브리감 영은 온타리오 주 킹스턴에서 30일 동안 일하여 45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만일 브리감 영이 이러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면 현재의 선교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에 킹스턴은 캐나다 선교부에서 개종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의심의 라벨이 신앙의 라벨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쪽을 다 존중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킹스턴은 캐나다 선교부에서 개종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회색빛 석회석 건물은 그대로 서 있었고, 도시의 모습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구도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태도뿐이었습니다. 의심의 라벨이 신앙의 라벨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킹스턴 지부의 지부장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주는 라벨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스타프 왜커 형제는 독일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영어에는 강한 억양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가진 적도 운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발사로 일하였습니다. 그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는 선교사들을 이발해주는 특권을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이발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날 그가 받은 모든 팁을 선교사에게 주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킹스턴에는 자주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리는 날이면 왜커 지부장은 선교사들을 택시를 태워 숙소로 보내고는 자신은 일을 마친 후 작은 상점의 문을 잠그고 폭우 속을 걸어서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구스타프 왜커 형제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저는 그가 낸 십일조가 수입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일조로 십분의 일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설명하는 나의 말을 그는 듣기는 하였으나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이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액수는 그의 수입의 절반이나 되었습니

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그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그들의 독특한 태도는 그들이 수입이 있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구스타프 왜커와 그의 아내 마가렛 자매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녀를 갖는 축복은 주어지지 않았으나 교회의 많은 방문자들을 아버지과 어머니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오타와에서 온 교양있고 박식한 한 지도자는 “저는 왜커 지부장을 방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

께 더욱 가까워지는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그 집을 떠나곤 합니다.”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변치 않는 신앙을 존중하셨습니다. 그 지부는 변창하였습니다. 회원의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들의 전세 건물이 비좁아지자 그들은 그들 소유의 아름다운 현대식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왜커 지부장과 그 아내의 기도는 응답되어 그들은 고국인 독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또 나중에는 아름다운 워싱턴 디시 성전에서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필멸의 생애에서의 그의 사명이 끝났을 때, 구스타프 왜커 형제는 그의 영원한 동반자의 사랑스런 팔에 안기어 평화롭게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순종적이고 충실한 종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임”이라는 라벨만이 어울리는 듯 합니다.<sup>10</sup>

자주 볼 수 있고 또 원하지 않는데 달게 되는 라벨은 “장애자”라는 라벨입니다.

여러 해 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1895~1985)께서는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브루스 알 맥콩기 장로와 저에게 그분께서 루이지애나 슈레브포트 스테이크의 축복사를 부를 때 얻은 경험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김볼 대관장은 택함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께서 어떻게 접견을 하시고,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천된 후보자들 가운데는 이 특별한 시기에 이 임무를 맡을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낮이 지나갔습니다. 저녁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김볼 대관장은 스테이크장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예배당 앞에서



뒤쪽으로 약 3분의 2정도 되는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스테이크장이 그가 제임스 워맥 형제라고 대답하자, 곧바로 김블 대관장은 “바로 저 형제가 주님께서 형제님의 스테이크 축복사로 택하신 분입니다. 모임 후에 고등학교회실에서 저와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찰스 케이글 스테이크장은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제임스 워맥 형제의 라벨은 보통 사람들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끔찍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시력의 대부분과 청력의 일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두 손과 한 팔도 잃었습니다. 그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법대에 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를 자신의 학급에서 3등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제임스 워맥은 “장애인”이라는 라벨을 달기를 거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김블 대관장께서 워맥 형제를 만나 주님께서 그를 축복사로 지명하셨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자, 그 방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맥 형제가 말했습니다. “김블 형제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축복사는 자신의 손을 그가 축복하려는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놓아야 합니다. 형제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놓을 손이 없습니다.”

김블 형제님은 친절하게 그리고 인내심 있게 워맥 형제에게 김블 형제님이 앉아계시던 의자의 뒤쪽으로 오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워맥 형제님, 앞으로 몸을 내밀어서 형제님의 두 팔 끝이 제 머리 위에 닿을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두 팔의 끝이 김블 형제에게 닿았고 워맥 형제는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팔이 형제님께 닿았어요! 닿았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닿았습니다.”라고 김블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닿을 수 있다면, 형제님의 팔은 형제님이 축복을 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닿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형제님 앞에 앉게 될 가장 키 작은 사람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워맥 형제의 이름이 스테이크 대회에서 발표되자, “열렬히 지지하는 회원들의 손이 하늘을 향해 번쩍 올려졌습니다.”라고 김블 대관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지명되었을 때에 예언자 사무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경우에 꼭 들어맞는 라벨이었습니다. 모든 충실한 회원들이 이 같이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 없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sup>11</sup>

겸손한 사람의 라벨에 적힌 메시지는 인생이라는 용단에 짜여진 금실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소년 사무엘의 경우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경험이었으며, 구스타프 왜커 형제의 간증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임스 워맥 형제의 부름에도 나타났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이 우리 각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는 라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

## 주

1. 마태복음 23:27~28.
2. 사무엘상 3:4.
3. 사무엘상 3:10.
4. 사무엘상 3:19~20.
5. 디모데전서 6:15.
6. 누가복음 2:46~48; 요셉 스미스역, 누가복음 2:46 참조.
7. 이사야 53:2.
8. 마태복음 26:48~50.
9. 디터 피터슨 닐리와 나단 글렌 닐리, 예언자 브리검 영의 유년 시절 이야기 (1959), 36쪽 참조.
10. 사무엘상 2:30 참조.
11. 사무엘상 16:7 참조.

## 가정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의 행동, 외모, 그리고 말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라벨과 같은 것이다.
2. 우리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사람에게서 옳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태복음 23:28).
3. 많은 예언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릇된 판단을 받아왔다.
4. 비록 사람들이 외모를 볼지라도,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7).
5. 우리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라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에시카 델핀 살리나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이와 같이 할 것을 자주 권고하셨습니다.”

나는 이 짧은 글을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해 왔다. 15세에 처음 접하고 이후로 계속 접하게 된 *리아호나*에서 그 글을 발견했다. 그 기사의 제목은 “개시를 축복해주시옵소서”(성도의 벗, 1990년 9월호, 44쪽 참조)였다. 나는 그 기사가 미친 영향으로 인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였으므로 지금도 그 기사의 제목을 뚜렷하게 기억한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 세 명과 나는 한 주 동안 정확을 당했다. 당시 내게는 이사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 중 하나였다. 그러나 후에 이사벨은 나의 최대의 적이 되었으며 무케이와 자넷, 후아나 그리고 나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이사벨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은 이사벨이 우리 모르게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시작되었다. 이사벨은 우리를 비난하였으며 나와 친구들에 관해 비판을 해댔다.

이사벨이 배신을 하고 그에 우리가 대항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논쟁하고 싸웠다. 멕시코의 레르도 데 테야다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들은 선생님들께 행동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5일 간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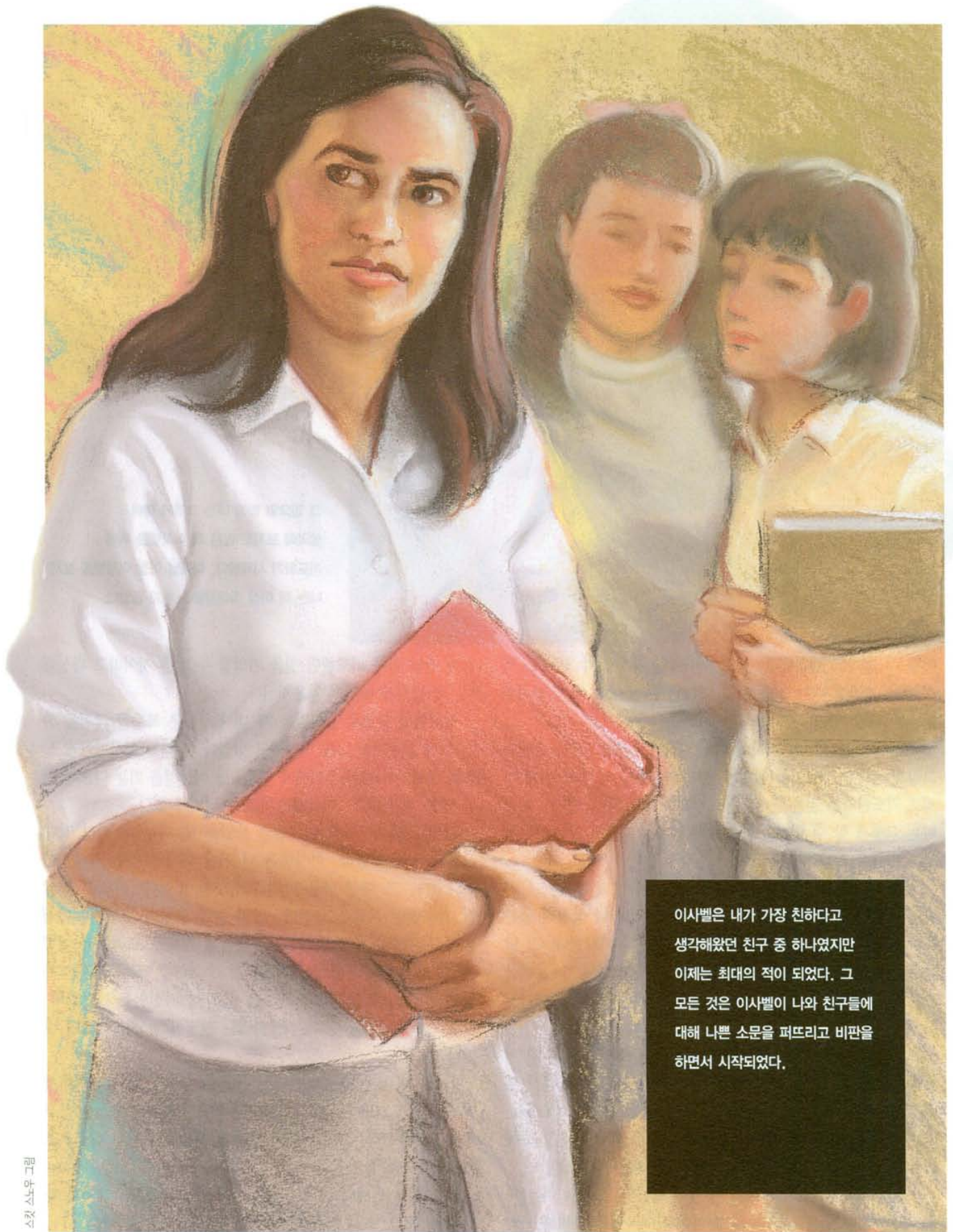
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5일 동안 나는 이사벨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이사벨이 내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그 애에 대해 더 큰 분노와 적개심이 일어났다.

어느날 오후 나는 친구인 로지의 집에 가기로 했다. 로지는 최근에 내가 몰몬 교회로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 침례를 받고 가입했다. 로지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나를 여러번 초대했었다. 심지어 몰몬경이라고 부르는 책을 내게 읽어주기도 했다.

이번에는 로지가 함께 교회에 참석하자고 권했으며 나도 진심으로 더 알아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로지는 내게 *리아호나*스페인어판을 한 권 주었고 나는 로지에게 시간을 내어 읽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야 그 잡지를 읽었다. 내 마음은 온통 이사벨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그 잡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 전체를 훑어보다가 내 주의를 끄는 기사를 발견하였다. 그 기사는 내가 이사벨에 대해 겪은 것과 비슷한 일을 경험한 내 나이 또래의 소녀에 대한 것이었다. 그 소녀도 나와 똑같은 중요성과 적의를 경험하였다. 그 소녀와 나의 유일한 차이점은 나는 그 소녀가 했던 것처럼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사벨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을 결코 던져



이사벨은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해왔던 친구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최대의 적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은 이사벨이 나와 친구들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비판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일요일 밤에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이사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이사벨을 보자  
나는 더 이상 적대감을 느끼지 않았다.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코 이사벨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 기사를 쓴 소녀가 했던 것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없었다.

나는 리아호나의 그 기사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나의 경험과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한 것이 이상했다. 원수를 위해 실제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그 소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 감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음 일요일에 나는 로지와 함께 교회에 갔다. 나는 그 기사에 대한 생각을 거의 잊어버릴 뻔 했다. 그러나 성찬식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날 하루를 보내며 나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너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그 일요일 밤에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이사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기사 속의 소녀가 했던 그대로—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그대로 기도했다. 나는 이사벨을 위해 기도했는데 한 마디씩 할 때마다 심장 고동 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으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나는 내가 한 일에 놀랐다. 그러나 나는 또 한 다음날 이사벨을 본다면 내가 여전히 이사벨을 미워하고 있

으며 전날 밤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 감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월요일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내 친구들은 복수할 계획을 짜기 위해 앞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사벨에게 상처를 주고 이사벨이 우리에게 해준만큼 이사벨을 기분 나쁘게 만들 일을 해야 했다. 이사벨은 교훈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그 날 아침 이사벨을 보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적대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사벨은 더 이상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 대신 나는 나의 옛친구를 보았다. 그리고 전날 밤 기도했던 자신을 보았다. 나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어제 밤에 이사벨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서 어떻게 그 애에게 상처를 줄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 때, 교훈을 얻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현명한 권고를 배웠던 것이다.

이사벨과 나는 예전처럼 다시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음속의 적의와 증오심을 바꾸도록 도와주셨다. 그분은 내가 그런 감정들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셨다.

이 경험은 언제나 내게 특별한 것으로 남아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던 방법이다. □

물론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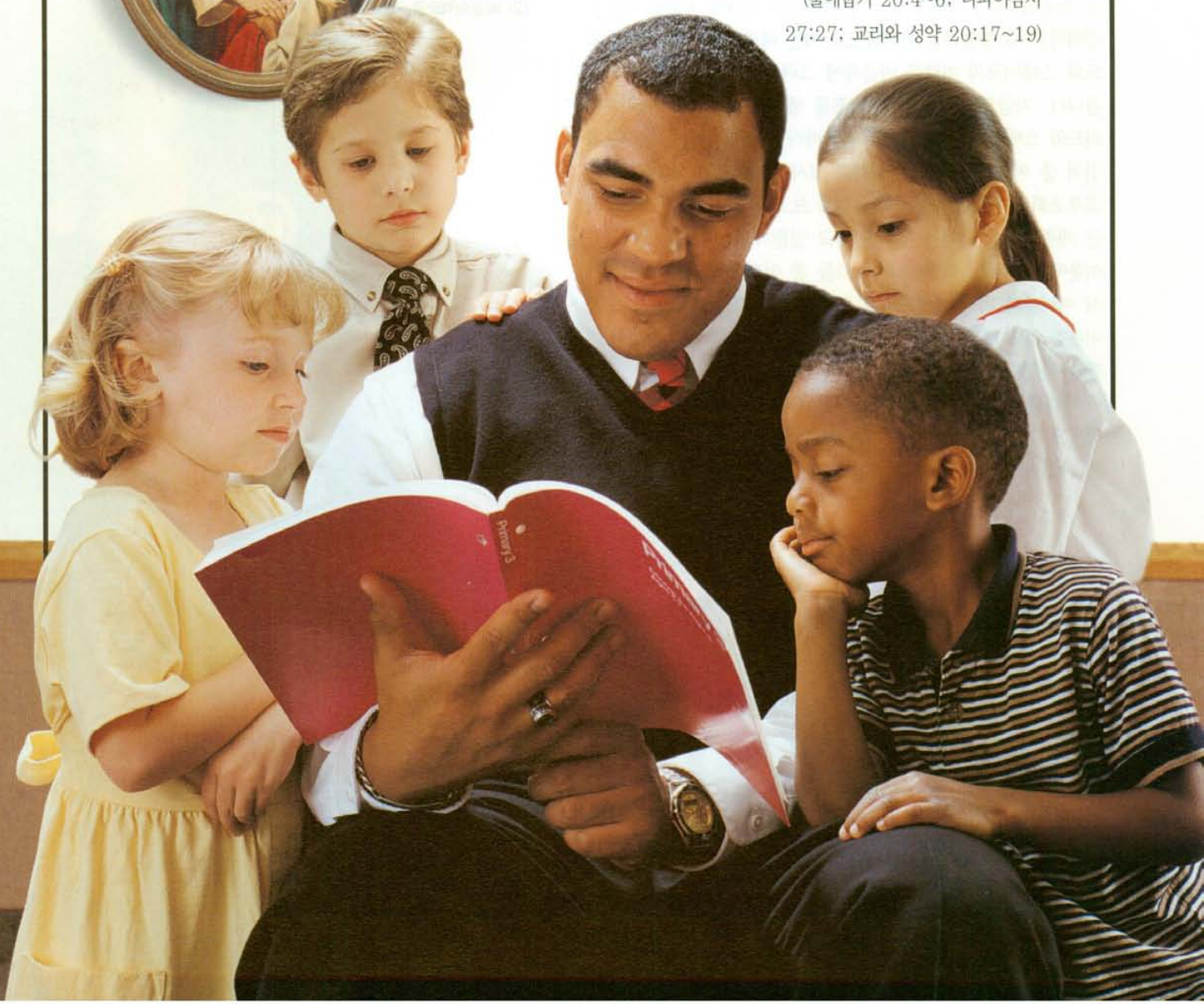
# 나를 따르라

“내가 행하는 바를 너희가 본대로 너희도 행하라”  
(니파이이사 31:12)



모방은 가장 진지한  
예배의 형태입니다.

(출애굽기 20:4~6; 니파이삼서  
27:27; 교리와 성약 20:17~19)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되어 복음이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 회원들이 열쇠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삼이사도 정원회

저는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어떻게 회원 선교 사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스테이크와 와드라는 말은 선교부와 지방부와 지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와드와 스테이크의 미래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 3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와드와 스테이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활동 친구들과 친척 중 여러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로서나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의 최근 개종자들이 그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비회원 친구들과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성찬식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들을 비롯한 와드 회원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느낄 커다란 기쁨을 상상해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펼쳐질 미래는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영적인 질을 높이고 그것을 성도들의 확고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랜 시

우리는 조사 자료를 통해 회원들이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과 활동 축진을 돕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역할 또는 직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 모범이 되며, (2) 비공식적으로 가르치며 (3) 융화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그래픽: 팻 거버와 스캇 웰터;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촬영자 이름이 명시된 것 제외; 오른쪽 삽입화: 월트 앤더슨 사진 촬영





간을 들어 계획하고 협력하며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지만 불과 소수만이 헌신적이고 즐거운 말일성도로 살아가는 결과가 나오는 미래를 상상해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되어 복음이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여러분과 세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 그분과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전임 선교사와 스테이크 선교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감독과 모든 감독 보좌와 모든 와드 평의회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스테이크장과 평의회, 특히 회원 선교사 협의 평의회가 최선의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양을 찾고 먹이리”,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1쪽) 모든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원과 저활동 회원들을 더 많이 도와주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이 환영 받는다고 느끼게 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준다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개종자들이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아있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돕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교회의 개종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느꼈던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침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을 환영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힝클리 대관장님이 베네수엘라에서 선교 사업을 더욱 강조하심”, *처치 뉴스*, 1999년 8월 14일, 7쪽에서 인용)

형제 자매 여러분, 힝클리 대관장님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예언자가 요구하시는 것을 행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성장 없이는, 즉 문서상의 증가나 또는 와드나 스테이크의 기록상 회원 수의 증가가 아닌 실제적인 성장이 없는 한은 여러분의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참여하고 헌신하는 말일성도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와 회원들과 스테이크 선교사 및 전임 선교사 사이에 참되고 효과적인 협력이 없다면 성장이란 선교사들이 혼자서 찾을 수 있고 또 혼자서 활동적으로 충실하게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이 회원의 도움과 참여없이 개종자를 찾아내고 침례를 주면 그러한 개종자들이 보통으로 그들의 여린 신앙을 유지하고 성도들과 융화하기 위해 엄청난 고심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 참다운 발전을 가져오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실제적으로 성장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행한 많은 조사 연구는 그런 일이 문을 두드리고 소책자를 전하고 혼자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만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은 많은 침례를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훌륭하게 각성시켜주는 놀랄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참된 성장을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도움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충실한 말일성도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움”이란 제목의 1998년 6월 19일자 대관장단 제공 자료에 그 청사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균형잡힌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와 회원과 전임 선교사들이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과 활동 촉진을 위해 함께 일할 때, 새로운 회원들은 복음의 축복을 더 충만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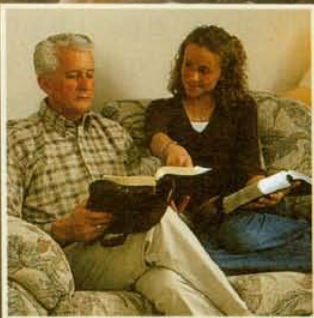


누리게 되며 교회는 더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라고 말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성장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회원으로서 여러분이 균형잡힌 노력을 통해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과 활동 촉진에 성공적으로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지역의 교회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절대적으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1) 개종자 침례와 (2)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과 (3)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해 꾸준하고도 계획적인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여러분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교회를 성공적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단기 목표를 모두 동시에 다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



## 스테이크장단에게

**모**범으로 이끄십시오. 여러분이 몸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비회원과 최근 개종자와 저활동 회원을 보살피도록 격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독단들과 함께 하는 스테이크 평의회 모임에서 회원의 선교 사업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하십시오. 어느 한 와드에서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와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선교사 협의 평의회에서 다른 스테이크장과 여러분의 지역 지도자들과 이러한 아이디어와 성공적인 사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각 와드의 실질 성장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감독들과 개별적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스테이크에서 선교사들을 가



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교부장과 토의하십시오.

스테이크 선교부장과 스테이크 선교사들에게 영감에 찬 지도력을 발휘하십시오.

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최종적인 목표를 분명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성장에 이르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회원으로서 여러분이 균형잡힌 노력을 통해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과 활동 촉진에 성공적으로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지역의 교회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절대적으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 열쇠: 회원들

여러분은 회원들이 교회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첫 번째 토론을 한 모든 구도자 중에서 단지 10분의 1만이 회원이 소개한 구도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에 대해 알리고 시작한 사람 중 단지 10분의 1만이 회원들의 노력을 통해 찾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토론을 계속하여 침례를 받게 되는 사람 중 반 이상은 회원들

을 통해 찾은 구도자들입니다. 회원이 소개한 구도자가 침례 받는 수는 다른 유형의 구도자가 침례 받는 수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10배 이상이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회원들은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까요? 우리는 조사 결과를 통해 회원들이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과 활동 촉진을 돕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역할 또는 직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 모범이 되며, (2) 비공식적으로 가르치며 (3) 용화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범이 됨.** 회원들은 말일성도가 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됩니다. 회원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모범은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더욱 적절하고 의미있고 설득력 있고 바람직한 것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생활 양식과 행동을 지켜보는 비회원은 여러분의 인상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로 인해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쁨과 확신과 따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 비공식적으로 가르침.** 회원들은 통찰력과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질문에 답해줌으로써 회복된 복음의 중요성과 권능을 비공식적으로 가르칩니다. 가장 기억할 만하고 강력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회원들이 복음이 자신과 가족에게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이 생깁니다. 또한 비회원이나 저활동 회원들은 종종 의문이나 걱정거리를 갖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믿을 만한 회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마음 편하게 여깁니다.

**3 용화됨.** 회원들은 사람들이 와드의 회원들과 더욱 가깝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교회 모임과 활동 모임에 사람들을 데려가며, 또 그들이 와드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끼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새로운 회원들이 회원 친구들의 도움 없이 교회와 조화를 이루고 완전히 활동적이기 위해 노



회원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모범은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더욱 적절하고 의미있고 설득력 있고 바람직한 것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회원들은 통찰력과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질문에 답해 줌으로써 회복된 복음의 중요성과 힘을 비공식적으로 가르칩니다.



력할 때 맞이하게 되는 엄청난 도전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교회에서 편안하고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며, 즉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베소서 2:19)고 느끼게 해주며, 성도들의 본태에 속한다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와드로 이사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체로 여러분이 와드의 회원들과 더욱 가깝게 되고 완전한 동료 의식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핑클리 대관장님의 권고대로 와드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과 또 저활동 회원들을 다시 완전히 활동화시키는 데 회원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핑클리 대관장님은 모든 새로운 회원들은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가지고 양육”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47쪽) 전임 선교사들은 이 일에 참으로 필수적이지만 스테이크 선교사를 포함하여 다른 회원들과의 우정 또한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와드 평의회가 등장합니다. 와드 평의회는 개종자들과 최근에 활동화된 회원들이 적절하게 양육되도록 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와드의 여러 조직이 와드 평의회에서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명받은 우정 증진이 진정한 우정 증진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처럼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종자들과 최근에 활동화된 회원들을 보살피는 와드 평의회는 일은 단순히 적절한 지명을 주는 것이 상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명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서

회원들은 사람들이 와드의 회원들과 더욱 가깝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교회 모임과 활동 모임에 사람들을 데려가며, 또 그들이 와드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끼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 감독단에게

여러분의 와드에서 바라는 미래와 그것을 달성할 방법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실질 성장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특정 와드에서 실질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균형잡힌 노력이 가장 필요인지 결정하십시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임 선교사와 스테이크 선교사와 와드 회원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습니까? 와드 평의회를 이용하여 이러한 목표와 방법들을 토의하고 개발하십시오.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항상 이 활동들을 통해 회원들이 구도자, 새로운 회원, 저활동 회원들에게 복음의 모범을 보이고, 비공식적으로 가르치며, 허물없이 용화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와드 활동은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러한 귀중한 역할

을 행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종자 침례 점검표를 현명하게 활용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감독들이 그것을 단지 일을 진행했고 또는 지명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서 각 개종자의 경험의 질을 토의하기 위해 그 표를 사용하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친구가 있습니까? 그들은 부름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활동적인 말일성도로 발전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와드 평의회 회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활동 회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다른



보조 조직 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와드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매달 평균 2명 이상의 개종자를 내는 와드가 3퍼센트 이하입니다. 그것은 97퍼센트의 다른 와드에서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 및 활동 촉진에서 더 한층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쪽: 크레이그 다이먼드 사진 촬영  
아래쪽: 제니 소마즈 사진 촬영

로를 효과적으로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와드 평의회는 또한 그 목적에도 초점을 맞추어 지명된 일이 이 귀중한 사람들의 생활에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 청년회, 초동회, 청남, 장로 정원회, 대제사 그룹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우정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배우는 사람들과 다시 활동화되는 사람들에게 빨리 손을 내밀고, 여러분의 조직을 통해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확립하는 데 있어 회원 선교 사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회원 선교 사업 수준은 충

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고, 또 더 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적인 회원의 35퍼센트 정도만이 착실히 회원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난 10년에 걸쳐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 수는 감소되어 왔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1987년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구도자 소개의 42퍼센트가 회원 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 후에 그 숫자는 20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회원 소개의 실제적인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이 하향 추세를 반드시 반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야호나, 1999년 7월호, 121쪽 참조)

# 스테인크 선교부장단과 스테인크 선교사들에게

여러분은 스테이크 선교 책임자들과 스테이크 선교사들이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지 아십니까?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임 참석과 계획과 협의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보고하고 계획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이와는 달리 스테이크 선교 책임자들과 스테이크 선교사들은 가장 큰 결과를 내는 일, 즉 비회원 친구와 저활동 회원 친구 및 최근 개종자들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일에는 상당히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의 전형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도 말입니다.

스테인크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비회원과 저활동 회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느끼는 기쁨을 그들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얻는 훌륭한 경험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초청하십시오.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할 때 개인



적이고 의미있는 도움을 주십시오. 구도자나 개종자와의 토론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어떤 주제가 토의됩니까?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식견이 이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개종자와 함께 일할 때 그들과 참된 관계를 발전시켜서 그들의 신임을 얻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말일성도의 생활 양식에 따라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며, 또 다른 면에서 그들을 도와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을 활동 모임에 초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와드에 융화되고 있다고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비회원 또는 저활동 친구와 친척들을 가장 잘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와드 회원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들이 선교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약속 장소까지 선교사를 차로 데려가거나 그저 단순히 선교사 토론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이상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들이고 그분의 사랑에 마음을 열 때 오는 변화를 누리



도록 도와주십시오. 회원들이 비회원 및 저활동 회원들과 교제를 나눌 때 더욱 편하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시에 의하면 회원들은 복음과 연관된 교제에서 비회원보다 더 한층 긴장하고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긴장을 풀고 그 놀라운 경험들을 즐기는 방법과 또 그들이 지닌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느끼는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 모범이 되고 비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융화되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균형잡힌 노력을 이루기 위해 전임 선교사들과 긴밀하게 일하고 협의하십시오. 이러한 노력이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 되도록 협의 모임에서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모세서 1:39 참조)

## 평의회 중요성

와드 평의회나 스테이크 평의회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와드 평의회와 스테이크 평의회를 본래 의도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조직의 관료주의 안에서 무의미하게 개최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지도자들이 평의회 모임을 이끄는 방법을 보면 그들이 다음의 신앙개조 14조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임을 믿는다.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모임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모임을 믿으며 앞으로도 많은 위대하고 중요한 모임이 열릴 것을 믿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모임을 참아왔으니 앞으로도 모든 모임을 참을 수 있기를 바란다. 모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와드에서 신앙개조 14조를 실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담은 이쯤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평의회 모임은 일정을 잡고 책임을 조정하고 보고를 주고 받는 시간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떻게 복음의 축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토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모임을 여러분의 도전과 영감 받은 해결책을 의논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평의회 회원들이 수동적으로 참석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창조적이고 영감 받은 방법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사려깊은 상호부조회 회장이 최근에 침례 받은 사람이나 재화동화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훌륭한 우정 증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장르 정원회와 보조 조직 지도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모든 와드 평의회 회원은 회원 선교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커다란 기쁨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예언자가 보여주시는 커다란 열의가 여러분에게도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언자를 따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커다란 기쁨임을 알게 되기를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이 교회는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그분의 교회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 그분의 소중한 자녀들의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과 활동 촉진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

1999년 8월 29일, 프로보(유타 주)의 선교사 훈련원에서 말씀하신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인공 위성 방송에서



# “날 찾아와 줘서 고마워”

루스 레티머 그림: 샘 로울러

**칠**레, 샌티아고의 한 청소년 대회의 청중들 앞에 청녀 두 명이 서 있었다. 그 중 한 명인 베아트리스 에러베너는 몇 년 전에 상호 향상 반원들과 친구가 되면서 교회의 충실한 활동 회원이 되었다. 다른 한 명인 브랜다 에스베도는 베아트리스가 교회에 돌아오도록 격려한 그 반의 회장이었다.

“오 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베아트리스가 말했다. “몇 명의 소녀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날은 매우 추운 날이었으므로 저는 그들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과자와 편지가 든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그때 그 편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베아트리스

“우리는 꿀벌반 청녀들인데 너에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특별한 사명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 그것은 진리를 찾고, 그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사람도 진리를 알도록 돕는 청녀가 되는 거야.

“우리 반에서 너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이 시대에 이 지상에서 살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렴.

“우리의 메시지를 받고 행복하길 바래. 네가 상호 향상반에 와서 우리와 함께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

면 좋겠구나. 우리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모임을 갖고 있어.

“진실한

“꿀벌반 청녀들

“브랜다 에스베도, 엔드리 드 라 베라, 마카레나 텔로, 패트리샤 그랜든 자매.”

베아트리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날은 제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는 누군가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소녀들과 그들의 편지 덕분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예요.” 베아트리스는 브랜다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날 찾아와 줘서 고마워. 정말 네게 감사하고 있어. 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딸이며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

그 다음으로 브랜다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청중들에게 말했다.

“1994년, 제가 우리 와드의 꿀벌반 회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반 모임에서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소녀들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목록을 만들었고, 이 소녀들에게 과자를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집에서 과자를 구워 우리가 만든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런 다음 그들에게 줄 카드를 만들고 그들을 찾아 나섰죠. 아주 추운 겨울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엔 용기와 사랑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방문한 소녀들은 매우 기쁘게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교회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소녀들을 찾으러 갔어요.

“그 중 한 명인 베아트리스 에러베너는 우리를 보자 매우 기뻐했어요. 우리는 베아트리스의 눈에서 우리의 방문을 고마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상호 향상반으로 베아트리스를 초대했고 베아트리스는 이에 응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행복했어요.

“처음 몇 번은 베아트리스를 모임과 활동에 데려오기 위해 직접 찾아갔어요. 얼마 안 있어 베아트리스는 혼자 모임에 올 정도로 강해졌죠. 그 이후로 베아트리스는 교회에 활동적이 되었어요. 그녀는 세미나리에 다니고 있으며, 복음에 충실한 소녀가 되었어요. 베아트리스는 위대한 일을 시작했는데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이제 부모님과 온 가족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베아트리스의 오빠는 현재 칠레 오소르노에서 전임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약간의 시간을 들여 헌신한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 단순한 활동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





#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섯 가지 방법

플러 제이 루이스

인생의 도전으로 압박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음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1** 우선 순위를 정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검토해보십시오. 어떤 것들은 덜 중요하며 많은 시간과 주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최선인지를 결정하여 그 우선 순위 초점을 맞추십시오. 반드시 해야 할 일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리시키십시오.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 휴식, 영양가 있는 음식, 기도, 운동, 교회 부름 및 출석, 경전 공부가 포함됩니다. 그 외의 것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십시오.

**2** 휴식을 취하십시오.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30분 정도의 낮잠, 산책, 가족 활동 같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3** 도움을 구하십시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청하십시오. 일이 많아 힘들어하던 어떤 어머니는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남편에게 자신의 느낌을 말했으며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근심을 얘기했습니다. 그 가족은 힘든 저녁 가사 일을 분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이 일을 함께 처리해 나가면서 어머니는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가족은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장애아가 태어났는데 부모의 힘만으로는 그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일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도움으로 그 부모는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4**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의 할 일 목록에

서 몇 가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어느 해, 우리 지역 학교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휴일 축제를 개최하는데 충분한 수의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를 취소해야만 했을 때, 부모들은 대신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5** 행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엘머서 36:3)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며 확신을 얻기 위해 항상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시간과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일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적인 계시를 받음

예언자 니파이는 너희가... 성신을 받으면 성신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 주시리니”(니파이이서 32:5) 라고 약속했다.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축복을 받는다. 개인적인 계시는 성신을 동반할 때만 가능하다.

## 평화의 언어

개인적인 계시는 어떻게 올까? 주님께 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교성 88:63)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신중한 기도는 하늘로부터의 축복을 가져온다.

회개로 부드러워진 마음과 연구로 단련된 정신은 우리가 영감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해준다.(교성 8:2; 9:7-9 참조)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아들 딸들을 영의 권세로 가르치시며, 이 영의 권세는 주님께 무엇이든 여쭙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마음을 밝혀줍니다.”(영으로 가르치고 배움,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2쪽) 계시는 종종 느낌의 형태로 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개인의 계시는 미묘하고 정화된 영적인 대화이며...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며... 성령은 속삭임이며 극히 부드럽게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쏟려있으면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님의 등불, 성도의 빛, 1988년 12월호, 35쪽)

## 위안과 조연의 근원

아이슬랜드, 레이카빅의 스페인부르그 구드문드스도티르 자매는 참으로 힘든 일을 견뎌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두 아들은 친한 친구로 지내는 지부장과 함께 근처에 있는 눈 쌓인 산으로 등산을 갔다. 등산 도중, 그녀의 큰 아들과 지부장이 목숨을 잃었다. 슬픔이 비수가 되어 구드문드스도티르 자매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왜 주님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구드문드스도티르 자매는 평상시대로 주님께 하루를 감사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날에 대해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자문해 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살아 돌아온 아들이 생각났다. 그녀는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죽은 두 사람의 선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녀는 다른 네 명의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들 및 손자들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감사의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 위의 짐은 가벼워지며 제 온 몸에 따뜻한 생명을 주는 느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고 제 가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이런 기쁨

을 느낄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해 했다. 영이 역사하셔서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평화와 기쁨을 느끼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셨다. (깊은 슬픔 속에서조차도, 성도의 빛, 1997년 12월호, 44쪽)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 이 보좌인 세리 엘 듀 자매는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인은 응답과 평안을 찾기 위해 어느 곳에 마음을 기울여야 할지 압니다. 그녀는 성령으로부터 조언을 얻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95쪽) □



오늘날 세상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아마도 극적으로 팽창하는 사탄의 영향력일 것이다. 사탄의 공격은 더 이상 미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담하며 맹렬하여 피하기 어렵다. 많은 죄악들이 “받아 들일만” 하거나 “정상적”인 행동임을 주장하며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공개적으로 경합을 벌인다. 사탄은 다량의 메스컴, 특히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을 조종하여 도덕적 타락을 유발하는 그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악에 대항하는 우리의 투쟁에서 혼자가 아니다. 거듭 반복되는 몰몬경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으로써 거듭 태어나 세상과 세상의 악의 영향력을 이기는 것이다. (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대속을 통해 새롭게 창조될 때 우리는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선 행하기를 열망하게 된다. (모시아아서 5:2 참조)

1921년에 훗날 제 9대 대관장이 된 데이비드 오 맥케이 (1873~1970) 장로는 선교 사업차 세계 여행에 나섰다. 사모

아의 아피아 근처로 향해하는 배에서 그분은 두 가지 교훈을 주는 훌륭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첫째로 그 경험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생각과,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나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두신 보상을 보여 주었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적었다.

“저녁 무렵, 물에 비치는 저녁놀의 잔광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수평선 언저리에 머무른 구름은 오렌지와 진홍빛의 다양한 색 테를 둘렀다. 멀리 서쪽에 짙게 깔린 구름은 어두운 자주와 검정빛이었다. 이 다양한 색깔들은 잔잔한 수면 위에 다양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구름의 그림자들은 길고 어두웠으며, 진홍빛을 띤 하늘의 그림자는 맑았지만 장미빛에서 희미한 분홍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선명하게 푸른 대양의 빛깔로 잠겨 들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깊고 진해지다가 모두 아름답고 고요한 황혼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때 초생달의 옅은 빛

말씀에 말씀을

#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이 비추는 바다는 커다란 거울 같았다.

“이 아름다운 광경에 대해 계속 생각하다가 나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것처럼 매력적인 광경도 어린이들의 순수한 삶,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의 고귀한 성품만큼 내 영혼에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고. 그들의 아름다움과 비이기심, 영웅의 자질은 그 무엇보다도 훌륭하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고 지극히 고귀한 것들을 시현으로 보았다. 나는 멀리 있는 아름다운 하얀 도시를 보았다. 비록 멀리 있었지만 향기로운 과일 나무, 화려한 빛깔의 관목들, 도처에 풍성히 만개해 있는 꽃들을 실제로 보는 듯 했다. 맑은 하늘에 이 아름다운 색조들이 비쳐 빛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이 도시를 향해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모두 늘어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나의 시선은 즉각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에게로 옮겨졌

다. 그의 옆모습밖에 볼 수 없었지만 나는 즉각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았다. 그분의 용모에서 풍겨 나오는 색채와 빛은 영광스러웠다. 그분 곁에는 숭고한 평화가 있었다. 그것은 거룩했다.

“나는 그것이 그분의 도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영원한 도시였으며,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곳에서 평안과 영원한 행복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인가?

“구세주께서는 나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그들 위에 나타난 반원을 가리켜 대답하셨다. 그 반원에는 다음과 같은 금색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들은 세상을 이겨낸, 진실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니라!”*

*“잠에서 깨었을 때 아피아 항에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테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저술에서의 소중한 경험, 클레어 미들미스[1955년, 101~102쪽] □



# 몰몬경에 대한 증거들이 쌓여가다

다니엘 시 피터슨

충실한 학문적 활동이 몰몬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주고 있다.

오늘날 말일성도들의 몰몬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 많은 연구로 인하여 이 책의 심오함과 그 번역자인 요셉 스미스의 탁월한 업적이 더욱더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물론 학문적인 지식이 간증의 근원으로서의 영적인 증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칠십인이었던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성신의 힘이 “몰몬경의 참됨에 대한 주된 증거의 근원임에는 틀림이 없다. 기타 다른 증거들은…부수적인 것이다. 어떠한 증거의 나열도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게 나열되었다 해도 [성신이] 차지하는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아무리 잘 제시된 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학문적 연구는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1829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8:2) 1832년에 주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고 말씀하셨다. 한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옹호할 수 없는 것은 쉽게 버려진다. 이성적 논증이 믿음을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풍토를 형성해 준다.”

주의 깊은 학문적 연구는 우리가 더 충만하게, 더 깊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로버츠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진리는 반드시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진리가 보다 분명하고 보다 완전하게 설명될수록 성령은, 이 사업의 참됨을 인간의 영혼에 증거할 더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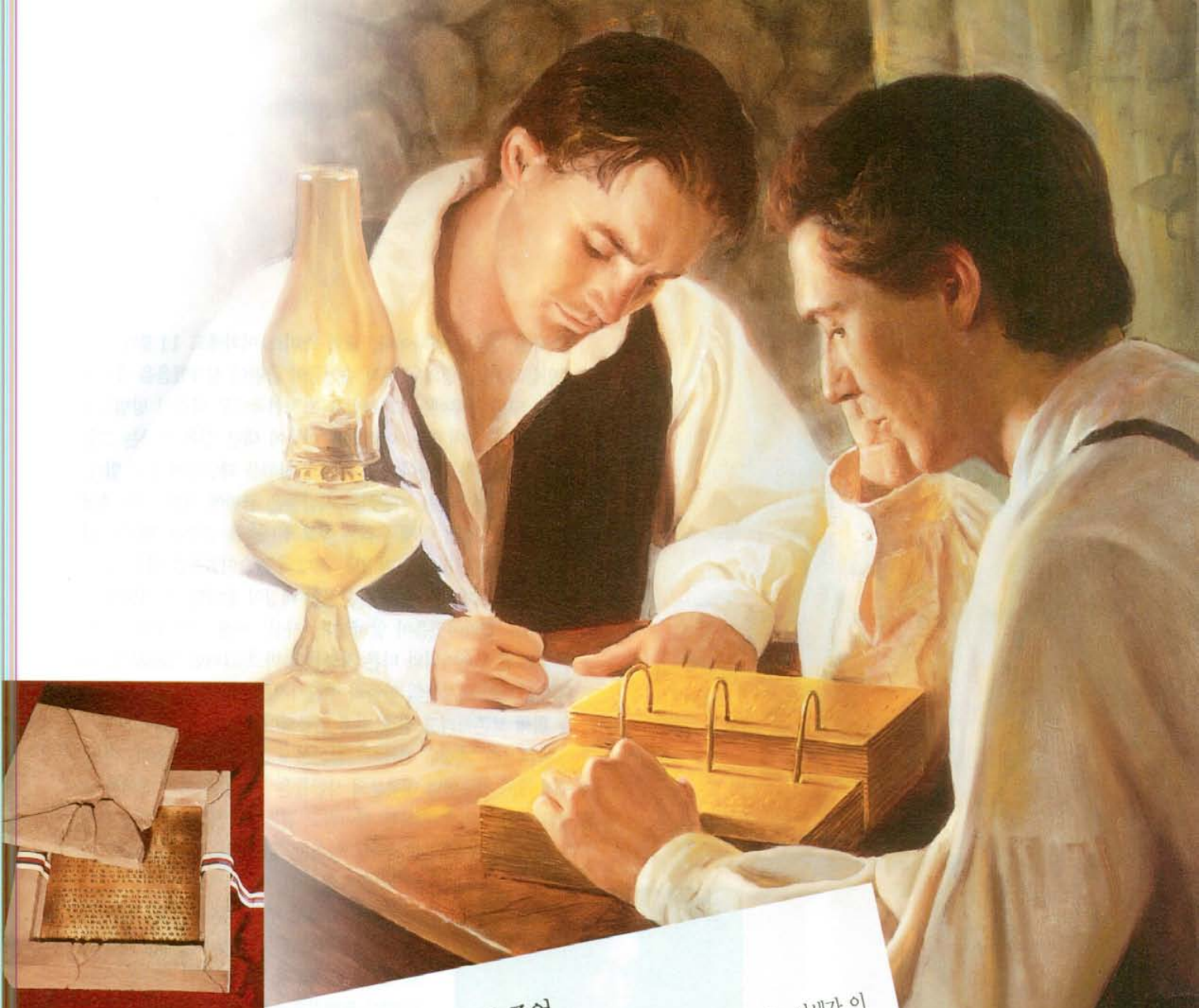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1899~1994)이 제13대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되었던 1986년 4월 연차 대회는 몰몬경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또 적용하는 데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교리와 성약 84편 54~58절을 인용하면서, 벤슨 대관장은 교회 회원들이 기본적인 경전을 소홀히 하여 왔으며, “주님께서는 몰몬경을 재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계시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였다. 그는 또 성도들이 “몰몬경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축복하였다.

그러한 축복이 성취되어 왔으며 또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이다. 감사할 만한 것은 몰몬경에 대한 관심이 그 이전에 이미 교회 회원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을 엿볼 수 있는 한 예로서, 몰몬경 연구에 대한 출판물이 1970년대에 50퍼센트 증가했고 또 1980년대 초에는 230퍼센트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한 증가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몰몬경과 고대 시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주요한 점 몇 가지를 본 기사에 요약하여 보았다.

## 판과 번역, 그리고 증인들

1820년대에 짧은 기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확실히 금판을 지니고 있었다. 이 점은 말일성도 역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증명

왼쪽: 기원전 515~516년에 한 돌 상자에 묻혀져 있던 다리우스 왕의 이 금판을 포함하여, 금속판에 새겨진 고대 기록에 관한 100 가지 이상의 예가 발견되었다. 오른쪽: 금판의 공식적인 증인들에 관한 연구결과는 증인들의 선한 성품을 확인해 주고 있다.



### 여덟 목격자의 증언

이 물몬경을 맞이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전하노니 이 책의 번역자 요셉 스미스 이세가 이 미 알려진 금갈아 보이는 판을 우리에게 보였으며 또한 그가 번역을 끝낸 판들을 우리 손으로 친히 만져보았노라. 아울러 우리는 그 판 위에 조각된 기록을 보았으며 그 솜씨가 모두 오래 전의 것 같았고 심히 진기하였느니라.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스미스가 그 판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어 우리는 친히 보고 만져 보아 이제까지 이야기한 금판을 스미스가 분명히 얻었음을 엄숙히 증언하노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서로 서명하여 세상에 전하며 우리가 본 바를 증거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를 증거하시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 하노라.

크리스찬 휘트머  
 제이콥 휘트머  
 피터 휘트머 이세  
 존 휘트머

하이람 페이지  
 조셉 스미스 일세  
 하이람 스미스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





된 사실 가운데 하나이다. 요셉 스미스 이외에도 11명의 공식 증인들과 여러 명의 비공식 증인들이 금판이 실재했음을 증거했으며, 몇몇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초자연적이고 극적인 방법으로 확인했다고 증거했다. 이러한 증인들에 대한 깊은 연구는 그들의 선한 성품과 그들이 남긴 기록의 참됨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더구나, 예언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금판에 대한 그의 주장을 조롱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종교적 내용을 금속판(때로는 금판)에 기록하는 것이 근거 있는 고대의 관습이었음을 알고 있다. 참으로 그 고대의 관습이 몰몬경의 백성이 살았던 그 시대와 지역에서도 행하여졌음이 알려졌다. 사실,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구리로 된 두루마리와 다른 자료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로서, 고대의 니파이 백성들의 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료들도 앞날을 위해 보존하려고 전쟁 전에 인봉되어 언덕에 묻혔다.

몰몬경은 “개정된 애굽어”(몰몬서 9:32)로 기록되었다. 이 주제에 대해 연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히브리 언어를 수정된 애굽 문자로 기록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최근에 우리는 여러 다른 고대 문서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기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몰몬경의 소개 부분에는 이 책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나오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최근의 증거와 학문적 연구는 이러한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했음을 보여 준다. 이와 더불어 여러 증거들은 그 책을 번역하고 받아쓰는 일이 대략 63일 동안에 완료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쓰거나 또는 수정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오늘날의 영문 몰몬경으로) 약 8.5쪽을 번역한 놀랍도록 빠른 속도였다.

더욱이 요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얻기 전에 어떤 학문적 연구를 하였다거나, 많은 책을 읽었다는 어떤

현대의 많은 연구 결과가 그 내용을 뒷받침하지만, 오직 성신의 권세를 통해서만 몰몬경의 참됨을 알 수가 있다.



증거도 없다. 사실 번역을 할 때 그는 성경 한 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요셉 스미스는 젊은 시절을 나무를 자르고, 잡목을 태우고, 바위를 깨고, 밭을 갈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기껏해야 겨우 몇 달간의 정식 교육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십대 후반에도 “우리 자녀들 중 다른 아이들에 비해 책 읽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회상하였다.

요셉 스미스의 아내 엠마는 1820년대 후반에 요셉이 “편지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잘 쓰거나 구술할 수 없었다. 물론경과 같은 책을 구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또한 “그 일의 상당 부분이 내가 있는 가운데서 행하여졌으며 또 행해지고 있는 일은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 [번역 작업의] 어떤 때에도 요셉 스미스는 그가 지니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금속판 외에는 읽거나 불러 줄 만한 어떠한 종류의 [원고나] 책을 결코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그가 어떤 책이나 문서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게서 감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엠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어떠한 사람도 영감을 받지 않는 한 그 원고의 기록을 읽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내가 서기로 일할 때 네 아버지께서는 여러 시간 동안 내게 원고를 불러 주었는데 식사를 하거나 잠시 쉬 후에 돌아와서는 번역했던 원고를 다시 보거나 읽어 달라고 하지도 않고서 중단했던 곳에서부터 곧바로 시작하시곤 했단다. 네 부친께서는 통상 이렇게 일을 하셨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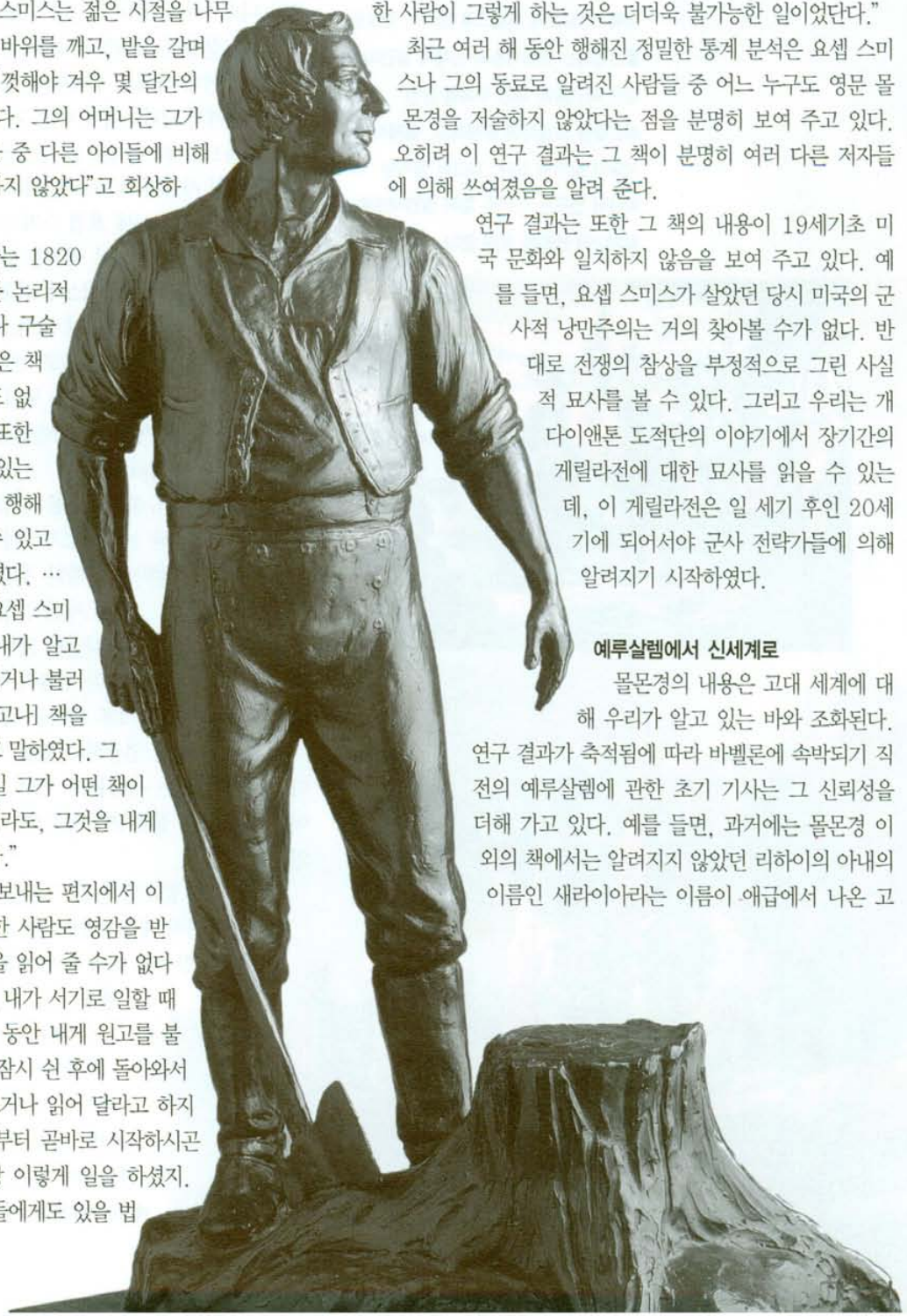
한 일이 아니었다. 네 아버지처럼 무지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행해진 정밀한 통계 분석은 요셉 스미스나 그의 동료로 알려진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영문 몰론경을 저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오히려 이 연구 결과는 그 책이 분명히 여러 다른 저자들에게 의해 쓰여졌음을 알려 준다.

연구 결과는 또한 그 책의 내용이 19세기초 미국 문화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요셉 스미스가 살았던 당시 미국의 군사적 낭만주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반대로 전쟁의 참상을 부정적으로 그린 사실적 묘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개다이엔톤 도적단의 이야기에서 장기간의 게릴라전에 대한 묘사를 읽을 수 있는데, 이 게릴라전은 일 세기 후인 20세기에 되어서야 군사 전략가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 예루살렘에서 신세계로

몰론경의 내용은 고대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조화된다. 연구 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바벨론에 속박되기 직전의 예루살렘에 관한 초기 기사는 그 신뢰성을 더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몰론경 이외의 책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리하이의 아내의 이름인 새라이아라는 이름이 애급에서 나온 고



어떠한 학문적 연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대략 63일간의 작업으로 번역이 완료된 물문경에는 콜럼버스의 신세계 발견과 같은 사건들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언들을 포함하여 완전하고, 실제적인 서술이 담겨져 있다. 최근의 증거와 학문적 연구는 이러한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했음을 보여 준다.



대 유대 문서에 등장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성경적인 이름인 니파이라는 이름도 그런 이름을 가진 물문경의 첫번째 등장인물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에 들어맞고 있다. 니파이에게 레이밴을 죽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니파이에게 하신 지시가 이제는 니파이 시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시로 볼 수가 있게 되었다.

니파이의 시현에 나오는 형상들도 고대 근동 지방의 상징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요셉 스미스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리 없다. 더욱이 그 예측은 놀랄 정도로 정확하다. 일반적으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적용되고 있는 니파이일서 13장 12절의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보자. "또 내가 보니 한 사람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데 큰 물로 인하여 나의 형제들의 자손에게서 떨어져 나와 섰더라.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심에 저 큰 물을 가로질러 약속의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의 자손들에게로 나아가니라."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탐험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출판된 콜럼버스가 지은 예언의 책에서 우리는 물문경의 서술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성령으로 인도되었으며 또 기독교 신앙을 열렬히 전파하고 싶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를 열망하였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그가 좋아하는 구절에는 "다른 양"을 언급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6절과 "바다 섬들"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사야서의 구절들이 있다. 이것들은 바로 물문경에 등장하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인 것이다.

1952년에 발표된 논문 "사막의 리하이"에서 휴 니블리 박사는 리하이의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육로 여행이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기하였다. 그 이후로, 말일성도 학자들과 탐사자들은 그 지역에 대한 실제 답사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여행 경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명확히 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물문경의 지명일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신세계에 이르는 리하이의 광

야 체류 기사에는 아라비아의 많은 지형적 조건들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19세기의 어떤 학자도, 또한 요셉 스미스도 그때는 그것에 대해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신세계에 이르는 리하이의 대서사시적인 여행은 그의 후손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져, 그들은 그 여행을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급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었던 것과 매우 흡사하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로 생각하였다. 사실 세심하게 읽고 살펴보면 리하이의 여행을 묘사하고 또 기억하는데 사용된 표현들이 출애굽에 관한 성경의 기사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에 관한 문학적 구성은 대단히 기교적이며 또 확실히 근동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신세계 지역에서의 구세계 문화

지금까지 작은 부분에서도, 물몬경의 뿌리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앨마서 11장 3~19절에 묘사되어 있는 환전 체계는 고대 바빌론의 경제 법령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켈나라이하의 사형(니파이삼서 4:28 참조) 이후에 그가 달렸던 나무는, 고대 유대 율법의 요구대로, 의식에 따라서 베어져 쓰러졌다. 앨마서 46장 21~22절에 나오는 니파이 병사들에 의해 행해진 충성의 서약은 고대 이스라엘 전사와 히타이트 전사 사이에서 행해진 군사적 서약과 그 형태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앨마서 30장 49절에서 코리호어에게 내려진 병어리의 저주는 고대의 여러 경우와 놀랄 만큼 유사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모사이아서 2~5장에 있는 모사이아 왕의 그 유명한 연설은 현재의 영문 물몬경에서 약 12쪽에 이르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로 거의 5,000 단어에 이르고 또 교리적 내용이 풍부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요셉 스미스는 하루가 조금 더 걸리는 시간 동안에 구술하였다. 최근의 연구는 이 설교가 고대 협약 및 성약 형태 그리고 초기 근동 지방의 즉위식 축제뿐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초막절 및 속죄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왕이 대 위에 올라서서 행한 (모사이아서 2:7 참조) 그 연설의 외형적인 면조차도 그러한 경우에 행하는 의식에 들어맞고 있다. 그러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경 또는 그가 접할 수 있었던 다른 어떤 책에서도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아라비아 반도에서의 리하이의 육로 여행에 대한 물몬경의 지리적 묘사는 이 지역의 특정한 지형적 조건들과 놀랄 만큼 유사점이 많다. 19세기의 어떤 학자도 알 수 없었던 것을 요셉 스미스가 그렇게 상세히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시아(Moshia)라는 고대 히브리 말이,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억압에 대항하는 정의의 투사를 나타내며, 그 사명은 선택된 백성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되, 특히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요셉 스미스는 알지 못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  
니파이의 예언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사해 두루마리는  
베들레헴이 고대에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한 마을로 여겨졌음을  
알려 주고 있다.

했을 것이다. 그 용어는 흠정역 성경의 영문판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폭력적인 해방은 모시아야서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몰몬경에서 엘마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의 등장은 많은 논쟁을 야기해 왔다. 비판자들은 엘마가 여성의 이름이며 또 히브리어라기 보다는 라틴어라고 지적하여 왔다. 그들의 주장이 옳기는 하다. 만일 요셉 스미스가 19세기 초반에 엘마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도 그것을 여성의 이름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문서는 엘마가 셈어로는 몰몬경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용감한 남자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엘마서 7장 10절에는 예수가 “우리 선조의 땅 예루살렘에서 ...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라”고 예언되어 있다. 과연 이 구절은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루어진 발견을 통하여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땅”이 될 수 있으며 또 고대에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 한 마을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이제는 명백하여졌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공개된 사해 두루마리 중에서 예레미야

시대 (따라서 리하이의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 따르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표현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요셉 스미스는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몰몬경 기록의 고대성을 나타내 주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는 최근 몰몬경에서 발견된 대차 대구법인데 이것은 고대의 특징적인 문학 구조 또는 표현 기술이다. 이 표현 구조는 병렬 어구를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성경 학자들이 간과하고 있었으며 요셉 스미스가 죽고 난 몇 십 년 후에야 발견되었다. 현재 이와 같은 문학 구조는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시대의 특징으로 확인되고 있다. 몰몬경에 나오는 대차 대구법의 몇 가지 예는 영어에서보다는 히브리어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며, 이는 몰몬경의 기원 언어에 대한 중요하고도 주목할 만한 단서이다.

그러한 많은 단서가 몰몬경의 지명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어손은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들에게 “상속의 땅”(엘마서 27:22)으로 주어진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히브리어에서 여어손은 “상속의 장소”를 의미한다. 요셉 스미스는 1820년대 후반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야곱서 5장에 있는 감람나무의 비유는 미국의 북동부에서 성장한 요셉 스미스가 경험하지 못한 올리브 재배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올리브 재배에 관하여 우리가 고대 문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니파이삼서 8장에서 나오는 커다란 멸망에 관한 기사는 지형적인 대변동에 관한 역사적 보고와 현대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 사이의 주목할 만한 유사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결코 화산을 보지도 못했으며, 큰 지진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 주제에 관한 전문 서적을 읽은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몰몬경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중앙 아메리카 지역, 멕시코 남쪽과 과테말라는 화산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존 엘 소렌슨과 다른 사람들이 행한 각고의 연구는 그 지역이 몰몬경에 들어 있는 복잡한 지형적 자료와 일치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우리가 고대 중앙 아메리카의 생활에 관하여 지속적으

로 알게 되는 것과 몰몬경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상관성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요약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몰몬경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몰몬경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그것이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한 젊은이에 의해 출현했다는 것이 세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그것에 담긴 역사적 서술은 진지하고 또 실제적이다. 그 내용은 풍성하고, 심오하며, 아주 세밀하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구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지명과 인명, 그리고 내부 인용문을 포함하고 일관성이 뛰어나며 또 매우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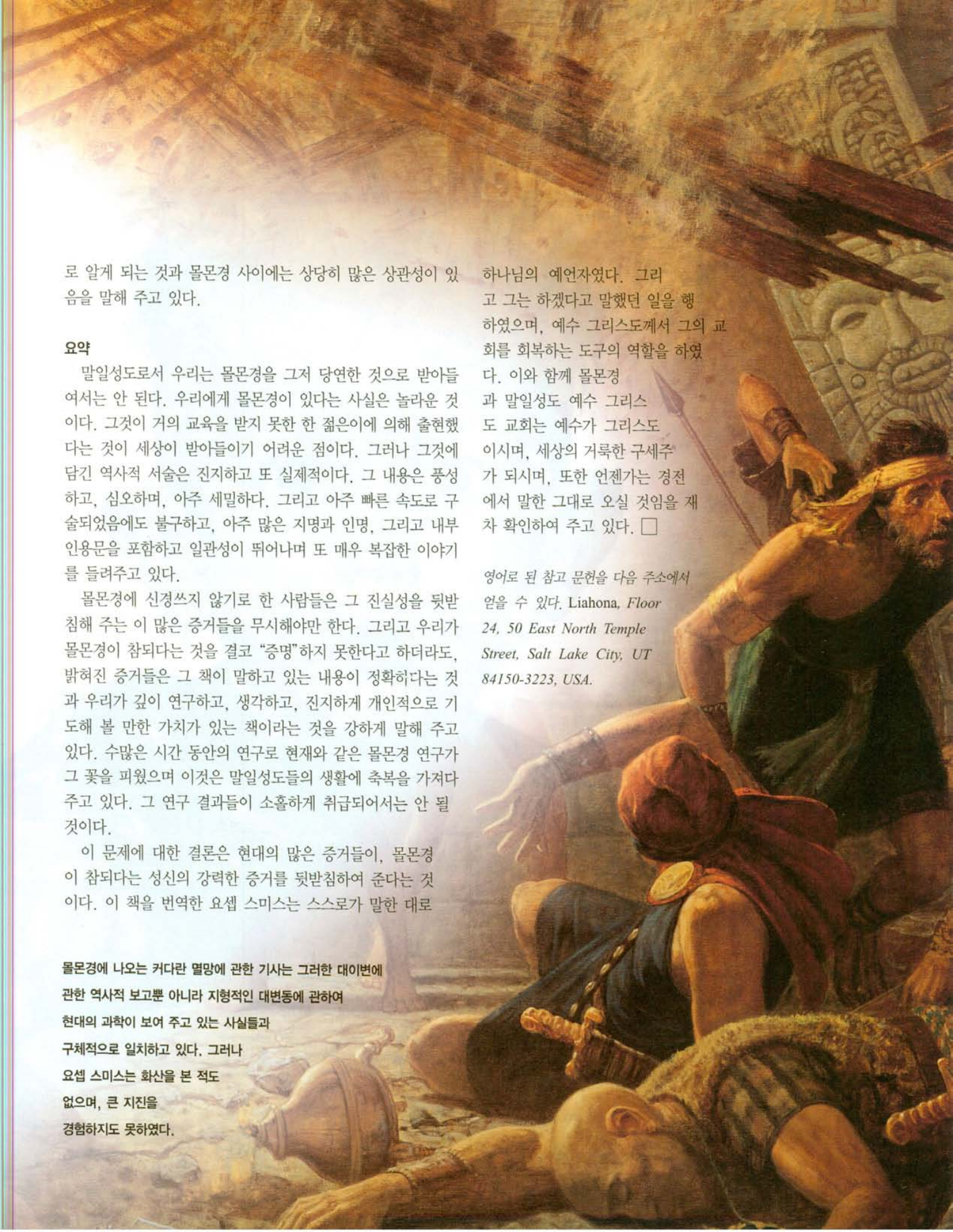
몰몬경에 신경쓰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 그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이 많은 증거들을 무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결코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밝혀진 증거들은 그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 수많은 시간 동안의 연구로 현재와 같은 몰몬경 연구가 그 꽃을 피웠으며 이것은 말일성도들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 연구 결과들이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현대의 많은 증거들이, 몰몬경이 참되다는 성신의 강력한 증거를 뒷받침하여 준다는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한 요셉 스미스는 스스로가 말한 대로

몰몬경에 나오는 커다란 멸망에 관한 기사는 그러한 대이변에 관한 역사적 보고뿐 아니라 지형적인 대변동에 관하여 현대의 과학이 보여 주고 있는 사실들과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화산을 본 적도 없으며, 큰 지진을 경험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의 예언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겠다고 말했던 일을 행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회복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몰몬경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거룩한 구세주가 되시며, 또한 언젠가는 경전에서 말한 그대로 오실 것임을 재차 확인하여 주고 있다. □

영어로 된 참고 문헌을 다음 주소에서 얻을 수 있다.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시리얼  
그릇에서  
얻은  
교훈

카라 헌트  
그림: 제리 톰슨



## 축복은 가끔 뒤죽 박죽된 포장에 담겨오기도 합니다.

**학** 신하건데 모든 어머니들이 한번쯤은 자신의 인생이 파란 만장한 하나의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같다고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나는 어느 특별한 날 아침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뜨거운 시리얼을 만들었는데 큰애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간 뒤였다. 두 살 짜리 아들이 잠에서 깬고 나는 그 아이를 부엌 조리대 옆에 있는 손잡이 없는 의자에 앉히고 시리얼이 담긴 그릇을 그 애 앞에 놓은 뒤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였다.

어떤 때는 너무 나쁜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가 있다. 그 상황이 그랬다.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이와 그 애가 던진 숟가락 사이에 무수히 떨어져 있는 시리얼들을 발견했다. 나는 말문이 막혀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애의 완벽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 작은 그릇에 있던 시리얼로 바닥을 이렇게 덮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나의 시선은 레인지 위의 시계로 옮겨졌다. 시리얼 덩어리 사이로 보이는 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애들 학교에서 있을 모임 시간이 한 시간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대로 잠옷으로 바뀌 입고 악몽이거나 해야 할까,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시리얼로 뒤덮인 부엌을 치워야 할까?

나는 시리얼이 굳어지기 전에 바닥을 치우기로 결정했다. 무스를 바른 듯 머리칼이 곤두선 채 그대로 의자에 앉아있는 아들을 화난 얼굴로 노려보면서 소매를 걷어 부치고 싱크대로 갔다. 나는 걸레를 손에 집어 들고 치우기 시작했다.

깨끗해질 때까지 수도 없이 문질렀다. 나는 다시 한번 아들 녀석을 쳐다보았다. 그 애가 한자리에 이토록 오래 앉아 있는 적은 없다.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지켜보고 있거나 시리얼과 함께 자리에 말라붙은 거겠지.

아들 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 나는 이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어떤 것, 즉 두 살 짜리 아이의 얼굴에 나타난 양심의 가책을 보았다.

“엄마, 미안해요.” 갈색의 큰 눈은 고인 눈물로 반짝였다.

나는 아이를 냉정히 꾸짖었는데 왜 그 아이는 그렇게 반응해야만 했을까? 나는 시계를 흘끗 보고는 모임 시간이 이미 지났음을 알았다. 나는 원망 섞인 한숨을 쉬며 걸레를 빨고 아이를 씻기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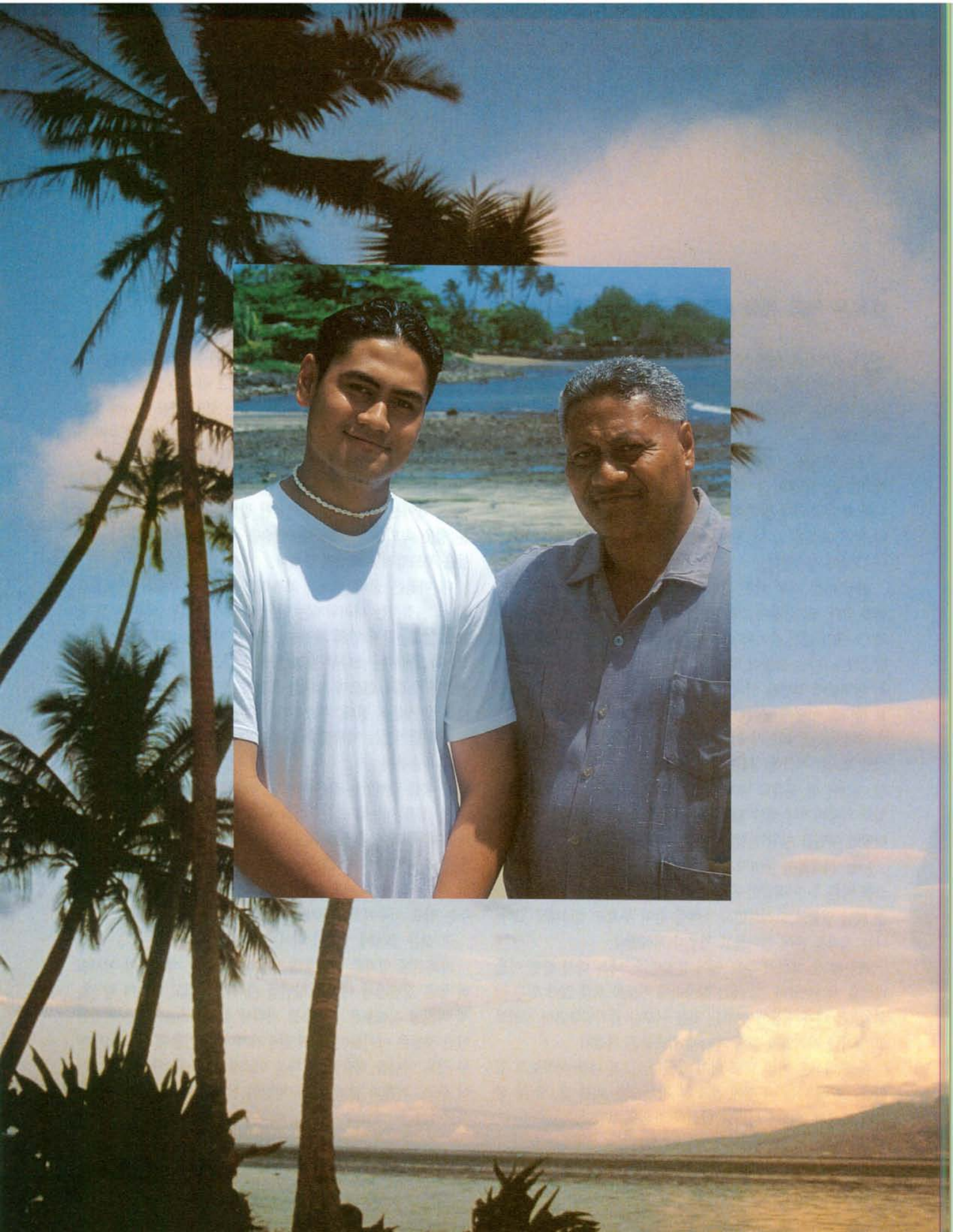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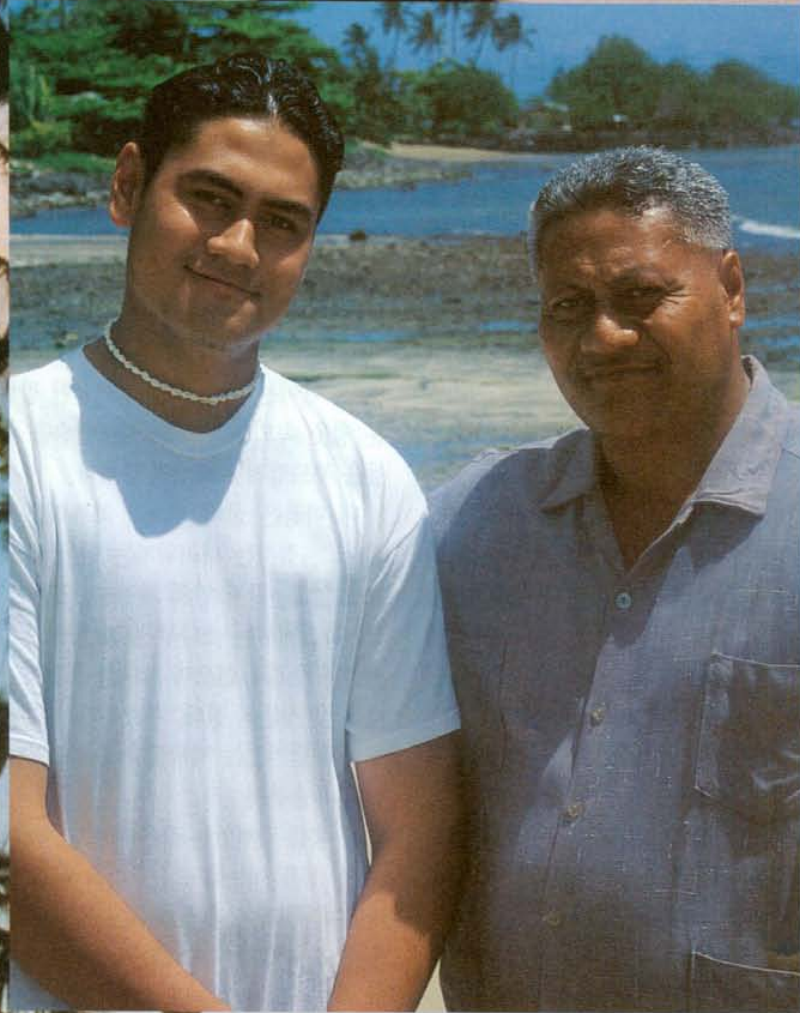
끈적거림이 없게 잘 닦아낸 뒤, 마침내 나는 아이를 들어 올렸다. 아이는 즉시 그 토실토실한 팔로 내 목을 안으며 부드러운 털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한숨을 쉬며 나는 앉아서 그 애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거리려 주었다.

내 마음은 꿈의 세계를 표류하고 있었다. 부엌은 반짝반짝 빛나고, 접시는 더러워지는 법이 없으며 좀처럼 마루를 쓸 필요도 없고, 단지 안의 과자가 15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곳. 욕실에서는 소나무 숲의 향기가 나고 기름 때로 더러워진 손님용 수건도 없으며 잡다한 조립식 인형들로 차지 않는 욕조. 나는 잘 정돈된 침대, 부스러기가 없는 마루, 세탁 날짜까지 바구니에 담겨있는 세탁물을 그려보았다. 얼마나 멋질까! 그러나 얼마나 슬픈가.

내 목을 감싸안은 작은 팔이나 입술을 꼭 누르는 입맞춤이 없다면. 성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안기는 포옹이 없다면. 잠들기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나 종이컵에 심은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열망이 없다면. 집에서 만든 어머니 날 카드나 미술 숙제도 없고 크리스마스 때 쓰려고 신문지로 싸두는 찰흙 이수씨개 받침대도 없다면.

그 모든 것들에 생각이 미치자 내 관점은 바뀌었다.

카페트에 엮지른 음료수의 얼룩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장난감과 더러운 양말들 사이를 헤치고 다녀야 할 때, 새 벽시에 질해놓은 크레용을 지워야 할 때 좌절감을 느끼지만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내 인생에 가져다 준 기쁨에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꼭 껴안아 주고, 기쁨과 함께 온 그 엉망이 된 부엌에 대해 하늘에 감사했다. □





# 부전 자전



**아버지께서 크게 변화되셨을 때  
그분에 대한 제 감정도 크게 변했습니다.**

프레이저 오우머어가 로리 리브시에게 한 이야기

사진: 로리 리브시 및 라나 리쉬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우리 가족 중 유일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감리교 교회로 데려가길 원했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 어머니는 혼자 교회에 가지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들을 교회에 데려가신 적이 없습니다.

1989년에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았고 아버지 역시 두 달 뒤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저의 감독님이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그것은 놀라운 변화였으며 저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시기 전에 아버지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나쁜 것들은 다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술을 드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계신 것을 보았고 담배를 피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마냥 집에 계시면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침착해지셨고, 제 삶에 도움이 되는 영적인 복음의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저녁 기도 전에 복음과 그 중요성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는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항상 노력했지만 아버지께서 참여하시질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께서는 매일 밤 가족이 모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 순위로 삼으십니다.

우리 가족에게 교회가 가져다 준 변화를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전처럼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드셨다면 저도 그분의 본을 그대로 따랐을 것이며, 그런 행동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제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교회 회원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런 삶이 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함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또한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동생들이 저를 존경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아버지는 동생들이 저를 따를 것이며, 그들이 저의 의로움을 따를 수 있도록 제가 훌륭한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부친이 계시다는 것이 제게는 실로 축복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성찬식 말씀이나 축복을 하기 전에 언제나 신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신권 소유자이며, 제가 신권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신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곳 서 사모아에서는 많은 십대들이 술과 담배 등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모범은 제게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저는 이 점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 인

생에서 가장 멋진 경험 중 하나는 비이기적인 봉사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손한 마음의 라벨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소년 사무엘이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정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식

별하는 라벨이 됩니다. 대관장단 제 1보좌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3~10; 아브라함

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서 3:27 참조] (“라벨”, 리아호나, 2000

말했습니다. “인생의 태피스트리(벽걸

년 9월호, 7쪽) ✪ 다음은 주님의 제자

이 용판)에 짜여진 금실처럼 그것은 겸

로서 그분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

말씀 드린 회원들의 이야기입니다.



## “조그만” 방법으로 봉사함

낸시 알 르 드 시후엔테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사는 사람들이 가운데 나탈리오 비라자피아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 조상이 볼리비아계와 중국계인 그는 1922년에 태어났고 혼자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 나가는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비라자피아 형제는 자신을 주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쓰시는 도구라고 여기고 있다.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씨를 심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찌그러진 그의 자전거를 불

수 있다. 그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게 될 옥수수과 각종 야채들을 심으며 그 조그만 땅을 쉬지 않고 돌본다. 자신의 소유인 땅은 없지만, 그는 늘 씨 심을 공간을 발견하는 듯 하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 그는 가끔 당근, 배추, 근대 다발을 교회로 가져와 회원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한다.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말한다.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저의 이 작은 육신만이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제 손으로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을 많이 해 거칠어진 그의 손은 진정으로 그가 이룬 겸손한 승리를 나타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과 이웃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 준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알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비라자피아 형제는 자신의 재능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

멜라니 프라이스 웰먼

대학생인 나는 상호 부조회에서 봉사에

관한 훌륭한 공과를 들었다.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 수 있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를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길 원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알 수 있게해주세요.” 나는 기도를 마치고 학교

로 향했다.

바쁜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나는 내가 드린 기도를 잊어 버렸다. 그날 오후, 나는 식료품 가게에 갔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을 때, 나는 한 나이 드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계신 것을 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할머니가 산 식료품을 힐끗 쳐다보았다. 저 할머니는 식료품들을 집까지 어떻게 가져갈까? 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생각을 접어 두고 내가 산 물건들의 값을 치르고 상점 밖으로 나왔다. 상점 점원이 식료품을 트렁크에 싣는 동안 차 옆에 서 있는 그 할머니를 보았

다. 이전에 떠올랐던 생각이 다시 들었다. 저 할머니가 식료품들을 집까지 어떻게 가져 갈까?

난감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지? 저 할머니 집까지 따라가? 즉시 그 생각이 옳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더 이상 고민하기를 멈추고 차를 몰아 그 할머니 차를 따라갔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진 미친 짓이야! 내가 왜 이 할머니 집까지 따라가고 있지? 곧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다. 나는 그분에게 달려가 물었다. “식료품 나르는 것을 도와 드릴





까요?”

당황한 그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내가 근처에 사는 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럼, 여기서 일해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녀를 식료품 가게에서 보았으며 그녀가 어떻게 이 식료품들을 모두 집안에까지 운반할지 걱정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올려다보고 말했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어떻게 이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나 걱정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의 두 눈도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 두 인생에 감명을 준 성신의 훌륭한 영향력을 경험했다. 엘마서 17:9의 말씀이 떠올랐다: “하나님께, 자기들 위에 영을 내리사 저들과 동행케 하시며, 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로 삼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였으며”

우리의 삶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성신의 특별한 은사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끝까지 충실한 가정 복음 교육

말콤 더블류 왓슨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맡은 교회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발전시키는 이상적인 상황을 맞이한다. 나의 아버지는 한 동반자와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을 여러 해 동안 해오셨다. 그와 그의 동반자는 그들이 봉사한 가족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 가족들은 그들의 우정을 신뢰하게 되었다. 신권 임무로서 시작한 가정 복음 교육은 커다란 사랑의 유대를 이룩했다.

연세가 드시자, 아버지는 심한 관절염을 앓아 걸기가 매우 불편하셨다. 그러나

아버지와, 시력에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된 그의 동반자는, 여전히 함께 만나 그들의 옛 친구들을 방문했다. 그 두 동반자는 두 사람을 합치면 온전한 한 사람이 된다는 농담을 하곤 했다. 아버지는 운전하고 전화를 걸었으며 걸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그의 동반자가 나섰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한 자매님의 집 앞에 차를 세웠지만 아버지는 차에서 내릴 수가 없으셨다. 그는 동반자에게 말했다. “자네가 집으로 들어가 자매님을 문으로 나오게 해 주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줄 수 있게 말일세.”

그의 동반자는 천천히 걸어가 그 자매님에게 문으로 나와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비록 장애자여서 쉽게 걸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싫어요 라고 말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오래 동안 당신들 두 사람이 저를 계

속 방문해왔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방문하러 당신과 함께 차까지 जाएगा겠어요.”

그들 둘은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서로를 부축하며 문을 열고 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아버지는 자동차 문을 열었고 세 사람은 어두워져 볼 수 없을 때까지 황혼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이 아버지와 그의 동반자가 간 마지막 가정 복음 교육이었다. 다음 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어서 곧 그의 동반자와 그 자매님도 뒤따라 가셨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존중해주며 말 그대로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데 전념하심으로써, 내게 헌신적인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 사랑이 얼마나 크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 누가 교사인가?

아이교 도꾸자와

**이**본에서 교회 회원으로 침례 받은 지 2년 뒤, 나는 집 근처 병원에서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원 봉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수년동안 그 일을 계속해 오면서, 나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정말로 누가 교사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들로부터 나는 용서, 감사, 인내, 신앙, 그리고 봉사에 관해 배웠다.

나는 특별히 한 반을 기억한다. 다섯 명의 여자와 네 명의 남자로 구성된 반이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30세 정도였다. 거의 모든 사람이 병어리였고 스스로 먹을 수 없는 등,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말

을 하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대답을 했는데 대개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어 주었다. 때때로, 나는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 대부분을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로서 인생에서 우리의 역할을 가르치는데 사용했다.

어느 날 나는 칠판에 시편의 한 구절을 적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119:71) 내가 이 말씀을 쓰자마자, 항상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28세 된 남자가 그 성구에 대한 그의 간증과 동의를 나타내기 위해 그의 왼쪽 다리를 위 아래로 차기 시작했다.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30세 된 또 한 학생은 내게 감사에 관해 많이 가르쳤다. 어느 늦은 가을 날 아침, 그는 평상시에 받던 냉수 대신에 따뜻한 물 한잔을 받았다. 그는 그 따뜻한 물 한잔에 크게 기뻐했으며 하루 종일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워드 프로세서를 배우기 위해 고전했던 30세 가량의 한 여자를 기억한다. 그녀는 그것을 배울 계획을 세웠고, 다 배우는데 일년이나 걸렸다. 그녀는 왼손을 거의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끈기 있게 노력했다. 일단 워드 프로세서를 배우게 되자, 그녀는 배운 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방법과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나의 학생들은 내게 “주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주

님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7)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봉사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란다. 나의 학생들 각자에게서 발산되는 신성한 영성은 내가 복음에 따라

더욱 잘 생활하고, 구세주의 모범을 보다 잘 따르며, 정말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동기를 준다. 나는 그들에게서 육체를 초월하여 신성함에 이르는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



# 다섯



피터 아롱과 그림: 샘 홀러

1993년부터 나는 나이지리아에서 5년간의 군복무를 시작했다. 라이베리아와 시에라 리온에서 평화 유지군으로서 복무했다. 열여섯 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것이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나는 실로 많은 경험을 했다. 그 중 한 가지 경험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라이베리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내 인생에서 정말 특기할 만한 경험이었다.

중대장이 내가 몰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롱과 병사, 자네 몰몬인가?”

“네, 부대장님.” 내가 대답했다. “저는 몰몬입니다.”

나는 부대 막사를 다섯 바퀴 뛰라는 벌을 받았는데 모두 합치면 25킬로미터쯤 되었다. 그 뜨거운 날씨에 달리기를 마치고 그에게 보고했을 때, 그는 내게 단호한 어조로 내가 몰몬이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라고 말했다.

그는 몰몬 교회 회원들이 몰몬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잘 자라.” 그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내일 보자.”

이 대화는 나를 몹시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그의 집에 초대받았고 교회와 나의 간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아담의 범법, 배도, 그리고 회복의 필요성에 관해 토론했다. 그 어린 나이에 나는 그와 함께 구세주의 강림에 관해 토론했다. 나는 예언자요, 고대 기록의 저자 중의 한 사람이면서 그 기록을 요약한 몰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기뻐했다.

나는 중대장에게 몰몬경을 선물했다. 그는 내가 이러한 일들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자신이 알기에 나이지리아 군대에서 예수 그리스



# 바퀴

도에 관해 설교한  
사람은 내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는 내게 그것이 내가 물문이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일년 후, 소령으로 진급한 이 중대장은  
침례를 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나는 누군가가 간증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 큰 기쁨을 경험했다. 우리 안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 오는” (교리와 성약 18:15)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다.

이 사건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나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예언자의 부름에 순종했다. 1988  
년 4월에 선교사 부름을 받고 나이지리아 에누구 선교부에서 열심히 봉사  
했다.

나는 군 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과 그  
분의 완전하심에 감사하고 있다. 그분은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  
해 주셨다. 세상의 길로 이끄는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  
께 순종하는 아들로 남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내가 가졌던 그 기쁨을 다  
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한 것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충실한 중들에게 약속하신 영  
원한 보상을 얻기를 소망한다. 나는 이 지상에 선교 사업보다 더 위대한 봉  
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을 예비하는 것을 돕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

# 리아호나

## 2000년 9월호를 사용함

말씀, 반 공과, 가정의 밤 공과, 또는 세미나리 영적 모임을 위해 사용할 이야기나 인용문을 찾고 계십니까? 이번 호 *리아호나*에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 쪽의 숫자는 이 번호의 쪽을 나타냅니다. 친=친구들. 연례 색인은 12월 호에 실립니다.)

### 가정의 밤 제언

■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8쪽: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그 사람은 또한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 “회원들이 열쇠입니다” 12쪽: 여러분의 워드 또는 지부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가족과 우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했다.

■ “책 삼촌의 가장 중요한 장비” 친 6쪽: 상황이 적절하다면, 기도가 응답된 경험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한다.

■ “정확히 제 시간에” 친 16쪽: 여러분의 가족들은 가족의 단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임무를 맡을 수 있을까?



### 이번 호의 주제들

가정 복음 교육 .....	7, 40
가정의 밤 .....	48, 친16
가족 관계 .....	36, 38, 친16
개인적 성장 .....	24
개종 .....	8, 38
경전 공부 .....	친10
금식 .....	친2
기도 .....	8, 친2, 친6, 친8, 친16
모범 .....	11, 38
물몬경 .....	28
방문 교육 .....	25
봉사 .....	2, 11, 40, 친10
사랑 .....	36
상호부조회 .....	교회 소식
선교 사업 .....	8, 12, 46
성별 .....	26
성신 .....	25, 친6
신약 성서 이야기 .....	친13, 친14
심판 .....	2
십계명 .....	11
역경 .....	24, 46
예수 그리스도 .....	11, 26, 친13, 친14
용서 .....	8
우정 증진 .....	12, 22
장애 .....	2, 40
전세계적인 교회 .....	친4
주일학교 .....	교회 소식
지도력 .....	12
청녀 .....	교회 소식
초등학교 .....	친2, 교회 소식
회복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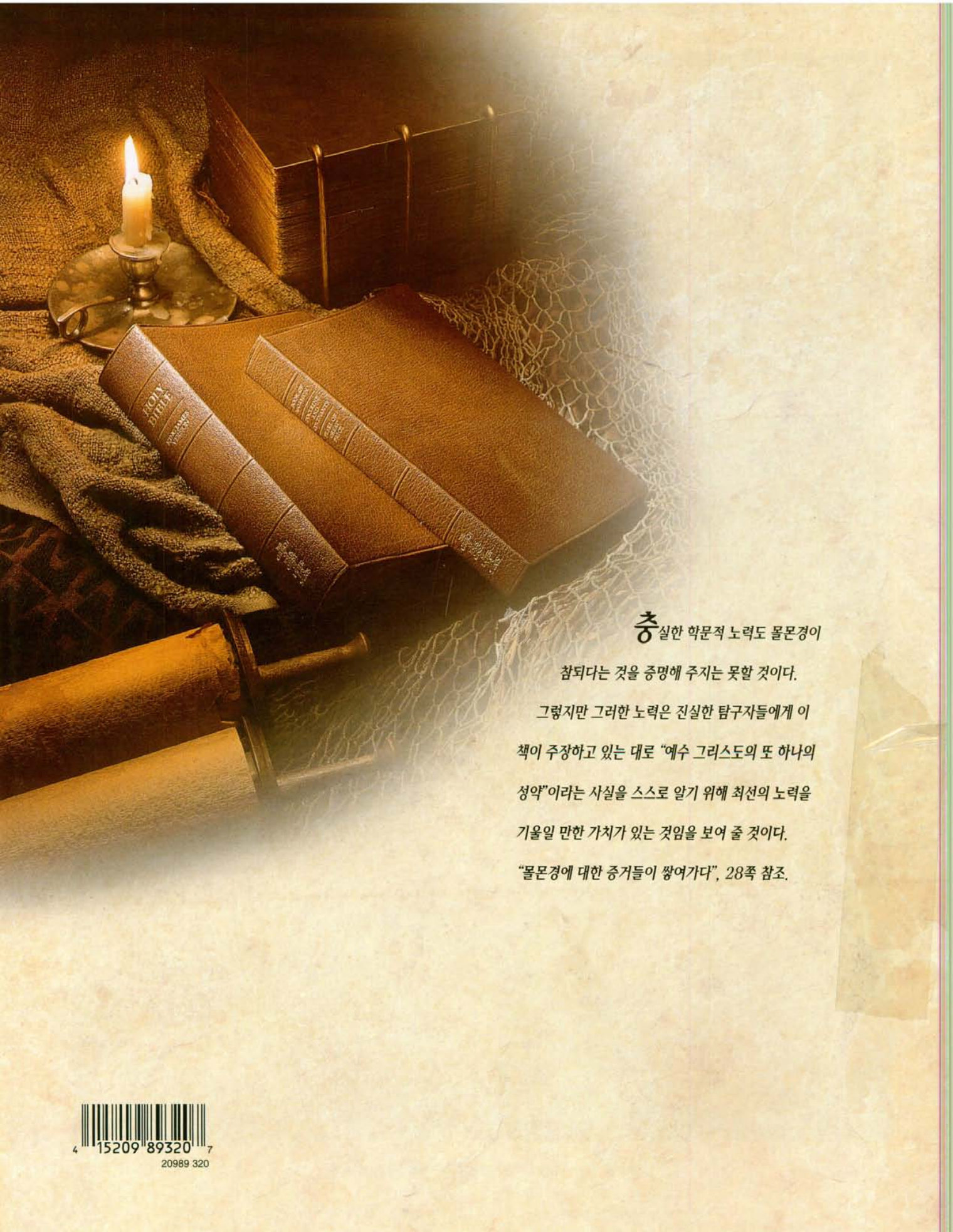
### 의견

여러분의 의견, 제언, 기사들을 *리아호나*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전자우편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워드와 스테이크 (또는 지부와 지방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그림: 델 파슨, 무기를 땅속에 파묻는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들.

"영이 말을 마치자 모든 사람들이 때를 지어  
저들이 가지고 있던 칼과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써던 오간 무기를 다 땅 속 깊이 파묻어더라." (제1차 2사:17)



충실한 학문적 노력도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은 진실한 탐구자들에게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보여 줄 것이다.

“몰몬경에 대한 증거들이 쌓여가다”, 28쪽 참조.



4 15209 89320 7  
20989 320